

리아호나

경전을 즐겨 읽으려면,
14, 16, 20쪽

옆이 아닌 위를 바라보십시오, 42쪽

선교사로 봉사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48쪽

어린이 여러분, 올해 물몬경을
읽읍시다, 60쪽



우 리는 올해 개인적으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몰몬경을
공부하면서 리하이가 그랬던 것처럼
고대 기록을 탐구하여 그 기록이 “바람직한
것”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가치가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계명을 보존해 줄 수 있게 하는
것”(니파이전서 5:21)임을 알게 될 것이다. 14쪽의
“자녀가 몰몬경을 사랑하도록 도우려면”과
16쪽의 “몰몬경에서 답을 얻다”를 참조한다.



복사 금지

생명나무, 윌슨 제이 옹

니파이전서 8장에서 리하이는 생명나무의 시현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주께 기도하고 나서 나는 크고 광활한 벌판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아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 보고는, 그 열매가 지극히
감미로워 내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움을 알았느니라. 또한 나는 그 열매가 희되,

내가 이제까지 본 흰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더 희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

또 나는 쇠막대를 하나 보았는데, 그것은 강둑을 따라 뻗어 있었으며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 이르더라.”(니파이전서 8:9~11, 19)



세상의 빛, 하워드 리온

“보라, 내가 울법ियो 빛이니,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니, 이는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노니, 그러므로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울법ियो 선지자니,
이는 이들이 진실로 나를 증거하였음이니라.”(제3니파이 15:9~10)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방문 교육을 통해 주의 깊게 돌보고 보살피십시오

특집 기사

- 16 물문경에서 답을 얻다
사라 디 스미스
여섯 명의 회원들이 물문경을 통해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함께 나눈다.

표지 삽화: 제프 와드



- 20 세계의 불가사의를 재발견하고 영적인 무감각을 극복하다
애덤 시 올슨
학자들이 마추픽추에 관해 점점 더 많이 알아가듯이 우리도 경전을 공부할 때마다 복음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 24 일상에서 누리는 축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십시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주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에 의지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 32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산 사람
테드 반스
올해 펠기세텍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학습 과정을 소개한다.

교회 본부 기사

- 8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교회에서 봉사하며: 지도력, 주님의 방법
크레이그 메릴
- 12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 방문 교사
제인 피 바우어즈
- 14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자녀가 물문경을 사랑하도록 도우려면
클라이트 제이 윌리엄스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전문가에게서 배우다
조지 시 로빈슨

위를 바라보십시오

42

42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를 바라보십시오

칼 비 쿡 장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고자 옆을 두리번거리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기 위해 위를 바라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나침반을 사용해서 태평양을 건너요.



52



46 해답을 찾아서

48 성약을 지키십시오: 선교사로 봉사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우리가 선교사로서 경건의 능력을 지닐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52 2012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본부 청남 청년 회장단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

54 포스터: 빛을 발하라

55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리와 성약 115편 5절

56 선교 임지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두 기도
카를로스 이반 가르멘디아 파체코

57 충실하십시오
제럴드 코세 장로
중요한 면접을 하는 동안 내가 믿는 바에 충실할 것인지를 재빨리 결정해야만 했다.



64

58 돌, 화살, 그리고 눈몽치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츠
저 형들을 어떻게 지나쳐 갈 수 있을까? 레이맨인 사무엘처럼 되자.

60 물몬경의 양식을 취하며
물몬경을 매주 읽고 이 표를 색칠해 보세요.

63 특별한 증인: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엠 러셀 블라드 장로

64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선택의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66 예수님 이야기: 물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다이앤 엘 맹검

68 태평양을 가로질러 맺어진 친구
제인 한스 라세터
각각 유타와 통가에 사는 초등회 어린이들이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다.

69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로즈메리 엠 워슨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어린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2012년 1월호, 제49권, 제1호
리아호나 1048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편집지인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럼,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벨슨, 델리 에이치 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퍼
고문: 스텐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콜먼 이세, 요시히코 가쿠지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에덤 시 울슨
공동 편집인: 수잔 배럿, 라이언 지, 멜리사 메릴
편집 스태프: 브리타니 비에티,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토, 라렌 포터 콘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리아 맥클라한,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피카, 채드 이 페러스, 켄 핀보로우, 폴 펜텐버그, 마리아 에이 위디슨, 엘리자 켈레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누드슨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터스
선임 디자이너: 시 킴벌 보드, 토마스 에스 차일드, 콜린 핑클러, 에릭 피 존슨, 스코트 엠 무이
제작 스태프: 클레트 네베커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킴 핀스터머,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비, 지니 제이 낄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예반 알슨

통 권: 제543호, 제49권, 제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2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정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g에 접속하여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g.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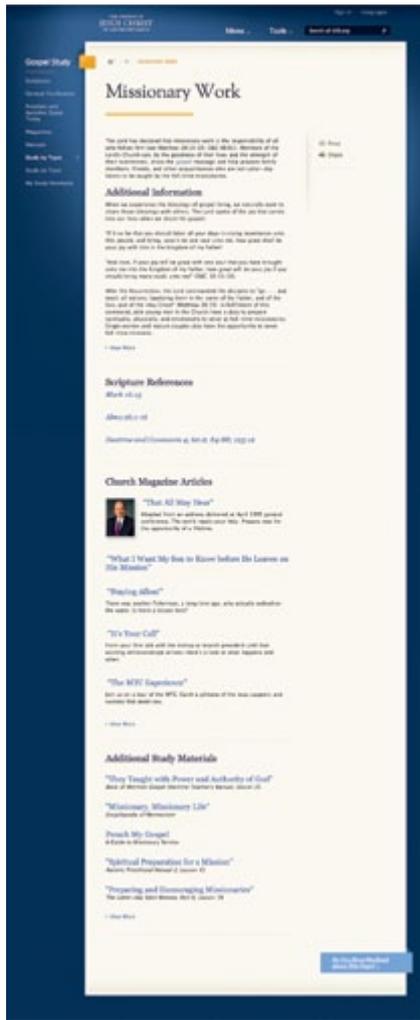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1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anuary 2012 Vol. 36 No. 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A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인터넷 기사 더 읽기



Liahona.lds.org

성인

이번 호에 실린 몇몇 기사는 경전 중에서도 특히 물문경에 대해 다룬다.(14, 16, 20쪽 참조) 201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물문경을 공부할 때 가족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했다. 이 말씀을 읽거나 들어보려면 lds.org/general-conference/2010/04/watching-with-all-perseverance에 접속한다.

마추픽추에서 여행 안내자로 일하는 한 형제가 복음을 공부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20쪽 참조) 경탄을 자아내는 그곳의 장관을 담은 사진은 liahona.lds.org에서 더 볼 수 있다.

청소년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홀런드 장로의 권고를 읽은 후에 http://lds.org/study/topics/missionary-work에 접속하여 선교 사업에 관한 더 많은 기사와 정보를 읽어본다.

이번 호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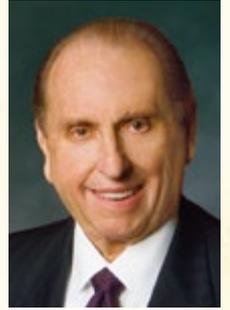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 가르치기, 14, 80, 46, 48, 56, 70, 72
- 가정 복음 교육, 10, 선지자, 32
- 가족, 14, 16, 79, 선택의지, 24, 64
- 개종, 16, 성약, 48
- 경전 공부, 14, 16, 20, 40, 소망, 4, 16
- 55, 60, 조지 앨버트 스미스, 32
- 교회 역사, 32, 시련, 24, 40
- 기도, 8, 24, 38, 42, 55, 신앙, 24, 57, 63
- 58, 69, 영을 따름, 41
- 동성에 끌림, 47, 예수 그리스도, 24, 40,
- 모범, 52, 54, 57, 70, 72, 66, 80
- 목표, 63, 용기, 4, 8, 57
- 물문경, 14, 16, 20, 40, 우정, 47, 68
- 60, 66, 자애, 7, 12, 32
- 방문 교육, 7, 12, 중독, 16
- 봉사, 10, 12, 24, 32, 38, 지도력, 10
- 46, 천사들, 47
- 상호 향상 모임, 52, 54, 태도, 4, 42, 52, 63
- 55, 회개, 16
- 선교 사업, 8, 32, 39, 41,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후기 성도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온 힘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저는 수많은 성취와 미덕, 축복으로 채워진 삶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ABC(다음에 소개 될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 것임-옮김이)를 학교에서 ABC를 배웠듯이 소개하겠습니다.

긍정적인 태도(Attitude)를 취하십시오

첫 번째 기본 원리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초기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 세대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은 인간이 내적 태도, 즉 사고방식을 바꾸면 외적 삶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한 것이다.”¹

삶에서 무척 많은 부분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런 후에 행복해지기로 선택한다면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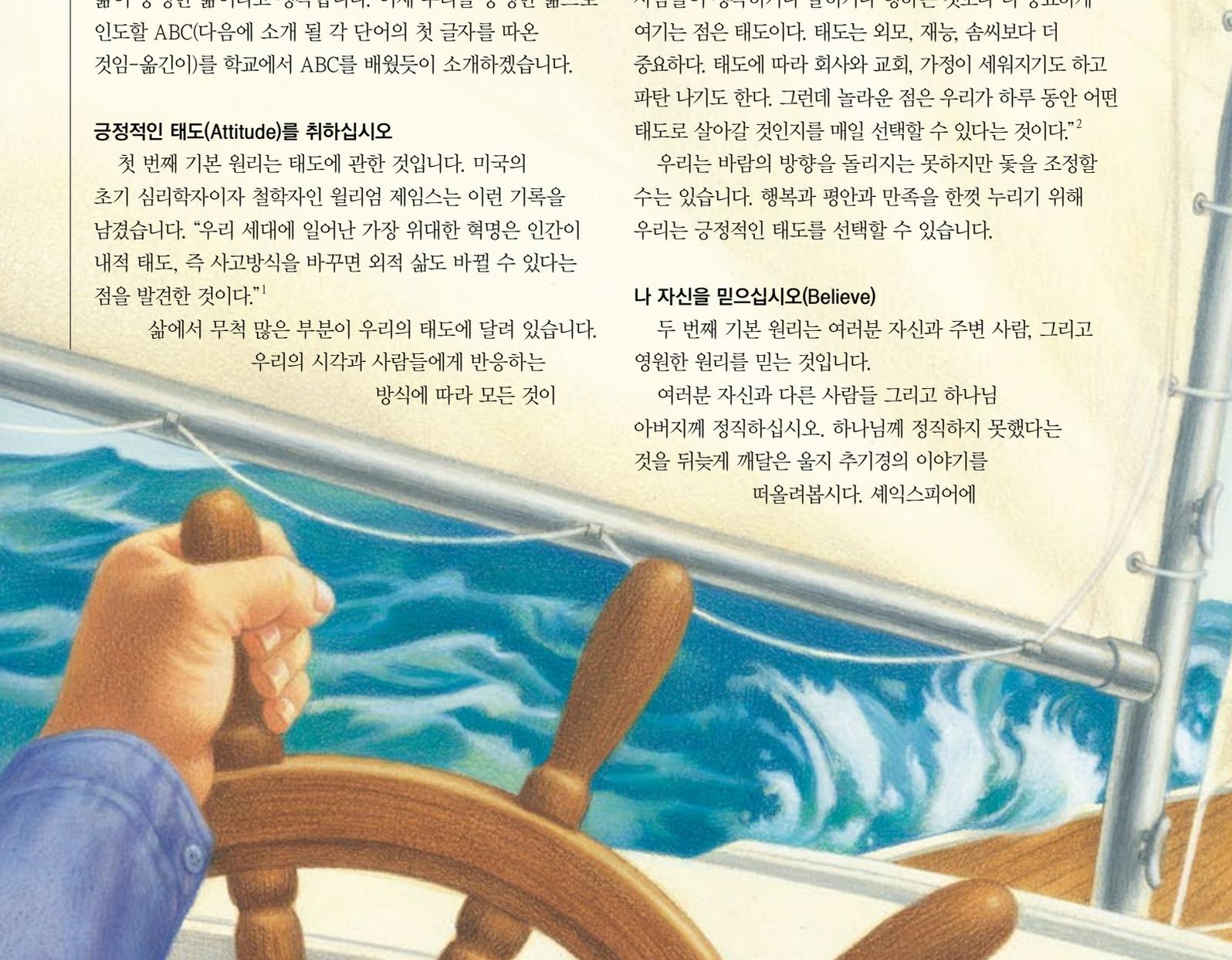
작가이자 교육자이며 기독교 성직자인 찰스 스윈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과거, …… 돈, 환경, 실패, 성공보다,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태도이다. 태도는 외모, 재능, 솜씨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에 따라 회사와 교회,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파탄 나기도 한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가 하루 동안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매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²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돛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한껏 누리기 위해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으십시오(Believe)

두 번째 기본 원리는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고 영원한 원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직하십시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울지 추기경의 이야기를 떠올려봅시다. 셰익스피어에



따르면, 올지 추기경은 오랜 세월 동안 세 군주를 보필하며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성격이 급했던 한 왕에게 모든 권력과 재산을 빼앗기고 맙니다. 올지 추기경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왕을 모시는 데 쏟은 열정 중 절반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쳤더라면
이 나이에 발가벗긴 채 적의 수중에
놓이게 하지는 않으셨을 텐데.³

17세기 영국인 성직자이자 역사가인 토머스 풀러는 “자신의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⁴라는 진리를 남겼습니다.

자신에게 한계가 있다고 선을 긋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고 하는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먼저 자신을 믿고, 그런 후 여러분의 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삶을 사십시오.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신뢰하고, 믿고,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도전 앞에
용감하게(Courage) 맞서십시오**

C는 용기(courage)를 나타냅니다.

용기는 그저 남자답게 기꺼이 죽겠다는 것보다는 사람답게 살겠다는 결심과 어우러질 때 훌륭하고 의미 있는 미덕이 됩니다.

미국 수필가이자 시인인 랠프 왈도 에머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맞아 하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은 언제나 뒤따르기 마련이다. 행동 방침을 정하고 결정한 것을 이루어 내려면 군인파도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 승리를 거두면 평화를 얻는다. 그러나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용기 있는 남성과 여성뿐이다.”⁵

두려워하고 낙담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패배자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승리는 너무도 까마득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골리앗에 맞선 다윗과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겼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소망하는 목표를 향해 첫발을 내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넘어져서 일어나 또다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는 훨씬 더 큰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합당한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을 다하여 나아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불가피한 시련에 맞설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일어나 다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용기를 내십시오. 때때로 용기는 하루를 마감할 때 “내일 다시 시도해볼 거야.” 하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발전시키고, 목표와 결심한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으며, 앞을 가로막는 도전이 무엇이든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는 이 세 가지 기본 원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주

1. William James, in Lloyd Albert Johnson, comp., *A Toolbox for Humanity: More Than 9000 Years of Thought*(2003), 127.
2. Charles Swindoll, in Daniel H. Johnston, *Lessons for Living*(2001), 29.
3. William Shakespeare, *King Henry the Eighth*, act 3, scene 2, lines 456-58.
4. Thomas Fuller, in H. L. Mencken, ed., *A New Dictionary of Quotations*(1942), 96.
5. Ralph Waldo Emerson, in Roy B. Zuck, *The Speaker's Quote Book*(2009), 113.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가 족들에게 긍정적인 태도, 자신에 대한 믿음, 또는 용기가 도움이 되었던 경험을 나눠 달라고 한다. 또는 이 세 가지 원리가 나오는 예를 경전에서 찾아보라고 한다. 가르칠 준비를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 구절이나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생각해본다.

폭풍에 맞설 용기

매디슨 몰리

스테이크 청녀 야영 둘째 날 밤, 무시무시한 폭풍우와 토네이도가 불어 닥쳤다. 야영에 참가한 우리 와드 청녀 스물네 명과 두 지도자는 모두 작은 오두막으로 대피했다. 비가 세차게 쏟아졌고, 바람도 거세졌다. 스테이크 회장은 우리가 안전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나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그 기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또한 오두막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고, 나 혼자서도 따로 기도를 드렸다.

무서워하는 청녀들이 많았고, 그것은 당연했다. 우리가 대피한 오두막은 그다지 견고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바로 옆에는 강이 있었다. 20여 분간 폭풍우가 몹시 사납게 불어 닥쳐 와드별로 각 오두막에 피신해 있던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모두 더 높은 지대에 있는 조 고문들의 오두막으로 달려가야만 했다. 스테이크 회장은 다시 기도하셨고, 우리는 위안을 얻고자 찬송가와 초등학교 노래 그리고 야영 노래를 불렀다. 물론 무서웠지만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느낌을 받았다. 30분이 지나자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는 와드별 오두막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날 밤 토네이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 토네이도는 두 갈래로 나뉘어져 하나는 우리 오른쪽으로, 다른 하나는 우리 왼쪽으로 돌아서 지나갔다는 것이다. 끔찍한 결과를 남길 수도 있었던 토네이도가 우리를 비껴간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날 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최악의 폭풍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나는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토네이도가 왜 갈라졌겠는가? 인생에서 폭풍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며, 그 폭풍 속을 무사히 지나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모로나이 대장

모로나이 대장은 어려운 일 앞에서도 용감하게 맞섰습니다. 진리와 자유, 신앙을 사랑한 모로나이 대장은 자신의 삶을 바쳐 니파이인이 자유를 지키도록 도왔습니다. 여러분도 모로나이 대장처럼 힘든 일도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깃발이나 다른 종이에 여러분과 가족에게 중요한 일들을 적어서 여러분만의 자유의 가치를 만들어 보세요.

더 알아보고 싶나요?

앨마서 46:11~27. 자유의 가치

앨마서 48:11~13, 16~17. 모로나이의 특성



사진 촬영: © CORBIS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방문 교육을 통해 주의 깊게 돌보고 보살피십시오

제 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랑은 단순한 자선이나 자비심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며, 회원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방문 교육은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이며,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주요 방법이다.

우리는 방문 교육을 통해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주의 깊게 돌보며 복음 말씀을 전하고 각 자매와 그 가족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게 된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백 자매는 이렇게 설명했다. “방문 교육은 얼마나 달성했는가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비로소 주님의 일이 성취됩니다. 사실 방문 교육은 끝이 없습니다. 방문 교육은 임무라기보다는 생활 방식에 가깝습니다. 방문 교사로 충실하게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합니다.”²

기도하는 가운데 꾸준히 주의 깊게 돌볼 때 자매들과 그 가족을 보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광범위할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다른 사람을 고양시키고 축복하는 데에는 작은 봉사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자주 있는데, 가족의 안부를 묻는 질문, 짧은



격려의 말, 진심 어린 칭찬, 간단한 감사의 글귀, 짧은 전화 통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인식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오는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면, 여러 좋은 일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 수많은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들이 제공한 봉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³

성구에서

요한복음 13:15, 34~35; 21:15; 모사이야서 2:17; 교리와 성약 81:5; 모세서 1:39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방문하는 자매들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친구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2.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잘 보살피고 돌볼 수 있을까?

신앙, 가족, 구제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1843년에 일리노이 주 나무에서 성도들은 네 개 와드로 조직되었다. 그 해 7월에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각 와드에 네 자매로 구성된 방문 교육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기부금을 모으는 책임을 맡았다. 상호부조회는 이 기부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⁴

지금은 방문 교사들이 기부금을 모으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영적, 현세적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제2대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이었던 엘리자 알 스노우(1804~1887) 자매는 이렇게 설명했다. “교사는 …… 반드시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영]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성신께 간구하신다면, 그 집에 머무는 영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렇게 한다면 평화와 위안을 줄 말이 마음에 떠오를 것입니다. 만약 어떤 자매가 냉담하다면 마치 어린아이를 가슴에 껴안듯 여러분의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십시오.”⁵

주

1. 헨리 비 아이어링, “영원히 지속될 상호부조회의 유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21쪽.
2. 줄리 비 백, “상호부조회: 성스러운 사업”,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14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을 인도해 줄 세 가지 목적”,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20~121쪽.
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년), 105쪽 참조.
5. 엘리자 알 스노우, 내 왕국에 속한 딸들, 108쪽.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1년 10월 연차 대회를 복습하면서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계신 선지자들과 사도들께서 주신 최근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에서 발췌한 이야기

홀로 설 수 있는 용기

“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 해군에서 복무할 당시 처음으로 저의 신념을 위해 용기를 발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

“첫 주가 지난 후 찾아온 일요일을 저는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입니다. 선임하사관은 기쁜 소식을 들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시원한 산들바람을 맞으며 훈련장에 정렬하여 하사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모두 교회에 간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나는 휴식을 취할 것이다.” 그런 후 그가 소리쳤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모두 데카터 막사에서 모인다. 세 시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행진!’ 꽤 많은 인원이 이동해 갔습니다. 그런 후 선임하사관은 그 다음 명령을 외쳤습니다. ‘유대교인들은 헨리 막사에서 모인다. 세 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행진!’ 다소 적은 인원이 행진해 나갔습니다. 그런 후 하사관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머지 개신교도들은 파라커트 막사에 있는 극장에서 모인다. 세 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행진!’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몬슨, 너는 천주교인이 아니야. 유대교인도 아니고, 개신교도도 아니지. 너는 몰몬이야. 그러니까 여기 그냥 서 있어!’

그때야 비로소 저는 제 뒤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완전한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감한 결정이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임하사관으로부터 들어 본 말 중에 가장 기본 좋은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제 쪽을 바라보며 ‘자네들은 자신을 뭐라고 부르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저는 제 뒤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거의 동시에 ‘몰몬이라고 부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몸을 돌려 몇 안 되는 다른 해병들을 보았을 때, 마음속에 차오르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임하사관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거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일 곳을 찾는다. 세 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앞으로 행진! ……

“그 일은 제 예상과 달리 다른 결과로 끝이 났지만, 저는 필요한 경우 기꺼이 홀로 서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뒤에 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섰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강하고 충실하게 남기로 결정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용감하게 홀로 서라”,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1~62쪽.

질문

-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여러분의 용기와 신념을 시험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 굳건하게 서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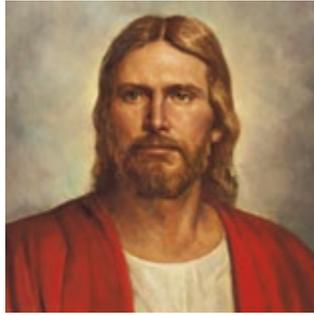
여러분의 생각을 일지에 기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자료: 경전 안내서, “용기, 용감함”; 토마스 에스 몬슨, “용기를 구하는 외침”,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54~57쪽; LDS.org의 Study by Topic(주제별 학습), “Peer Pressure”;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신앙으로 나아가라”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하시려면 conference.lds.org에 방문하십시오.

가서 행하라

십 이사도 정원희의 열
 톰 페리 장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에서 발췌,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42~43쪽.

1.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2. “사람들에게 의로운 모범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자 노력하며 선과
 덕성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 “그 다음 방법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선지자의 약속

“**하** 루도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통하지 않고
 보낸 날이 없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는 말 그대로 길 잃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신 분은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상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한 영감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선물로 주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4쪽.

빈칸 채우기

1. “기도하는 마음으로 _____ 을 공부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신앙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고대나 현대 선지자에 대한 신앙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줍니다. 삶을 더 낫게 변화시킵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증인”,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70쪽)
2. “_____ 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든든한, 영원한
 친구를 둔 것과 같을 것입니다.”(리차드 지 스코트, “경전의 힘”,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쪽)
3. “자신이 겪는 고난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_____
 를 통해 인생에서 겪는 모든 부당함을 보상받을 것입니다.”(쿠엔틴
 엘 쿡, “마음에서 울리는 노래”,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06쪽)
4. “_____ 이 있으면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기꺼이 봉사하고
 사람들을 도우며 사람들의 인정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실비아 에이치 얼리드,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115쪽)

정답: 1. 몸과 영; 2. 영구를 안기해 두는 것;
 3. 추격; 4. 사랑

지도력, 주님의 방법

크레이그 메릴 브리검 영 대학교 경영 전문 대학원 관리자

부름에 관계없이 주께서 알려 주신 대로 봉사하고 이끈다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동시에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다.

존 스 형제와 그의 아들은 윌리엄스 가족에게 가정 복음을 하라는 지명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기 시작했다. 윌리엄스 부부의 딸 김은 존스 부자의 방문을 받으며 그들이 자신을 염려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은 복음에 대한 질문이 많았으며 존스 부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즐거워 했다.

어느 여름, 김은 자신에게 간증이 있는지 한참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 당시 존스 형제는 다른 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와 함께 청녀 야영에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은 자신의 가정 복음 교사가 그곳에 함께 한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나중에 말했다. 김은 존스 형제와 다른 한 신권 형제에게 부탁하여 신권 축복을 받았을 때 주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간증을 얻게 되었다고 가족에게 이야기했다.

이 가정 복음 교사들은 김의 가족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친구였다. 이 형제들이 미친 영향력은 김과 김의 부모님, 그리고 주께 중요한 것이었다.

지도력과 부름

요즘은 흔히 직장에서 비교적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직책이나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임금 인상으로 개인의 성장을 측정한다.

우리는 종종 누가 더 많이 기여하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직위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그 직위를 보면 그에 따라 맡고 있는 책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많은 후기 성도들이 지도자로 부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지도자로 부름 받는 것이 우리의 발전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일까?

사실, 꼭 부름이 있어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부름이나 직책 없이도 참된 지도력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는 교리와 성약 121편에서 지도력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배웠나니 곧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그마한 권세를 가지자마자, 즉시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39~42절)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태도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지배하게 되기도 한다. “(신권을 지닌 혹은 신권으로 부름 받은)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 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121편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참된 지도자는 자신이 그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시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사람들이 그 지시를 따르기만을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신권 지도력이란 권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순수한 지식과 거짓 없는 사랑에 기초한 부드러운 권유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라는 말보다 늘 더 큰 동기를 준다.

지시를 내리는 지도자들이 많은 업무를 처리해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주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이 이끄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독립적인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주지도 못한다.



충실한 제자가 되다

“모든 교회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모로나아서 7:48)가 되도록 돕기 위해 부름을 받는다. ……”

지도자는 개인적인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참되게 따르는 자가 되는 방법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즉 다른 사람이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충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교회에서의 모든 부름에 내재된 목적이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년), 3.1.

참된 지도력

권위 있는 부름이나 직책은 41절과 42절에서 힘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절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열거되지 않았다. 그보다 참된 지도자의 힘과 영향력은 설득, 오래 참음, 온화함, 온유함, 거짓 없는 사랑, 순수한 지식을 통해 발휘된다. 부름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러한 참된 지도력의 덕목을 발휘할 수 있다.

지도자 부름은 자전거 보조 바퀴와 매우 비슷하다. 보조 바퀴는 어린이가 균형 잡는 법을 익히고 자신감 있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 준다. 지도자로 부름 받으면 사랑하고, 인내하고, 순수한 지식과 친절로 설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행동을 통제하려 하면 영이 물러가고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도 배울 수 있다.

해임되고 나면 우리는 부름을 수행하는 동안 스스로 성장하고 배웠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다. 부름이라는 자극제 없이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법을 배웠는가? 나에게서 발산되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 봉사하는 법을 배웠는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을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품고 있는지 아시며, 우리가 지닌 특정 기술이나 지식, 혹은 영성이 필요할 때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음성을 기꺼이 듣고자 하고 얼마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주님의 방법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고양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부름이 더 이상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부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지명 받은 교회 직책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될

것이다.

주일학교든 청소년 프로그램이든, 가정 복음 교사든 방문 교사든, 혹은 심지어 감독이든 상호부조회 회장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구주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부름에 관계없이 주께서 알려 주신 대로 봉사하고 이끈다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동시에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다. ■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끈 방문 교사

제인 피 바우어즈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7)



방문 교사의 축복

“충실한 방문 교사들이 매달 찾아와 보살펴 주고 구조하며 사랑을 보이고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자매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방문하여 단순히 경청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경청은 위안과 이해와 치유를 불러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돕거나 우는 아이를 달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바라 톰슨,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활히 여기라”,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0쪽.

19 70년대 말미에 한 친구는 나에게 상호부조회에 가자는 말을 했다. 나는 “그게 뭔데?” 하고 물었다. 친구는 간단하게 “직접 가서 알아 봐.” 하고 답했다. 아, 첫 순간부터 뭔지 모를 매력을 느꼈다.

그 해 늦은 여름, 우리 집을 찾아온 린은 자기가 나의 방문 교사라고 했다. 이상하면서도 흐뭇한 마음이 들었는데 당시 내가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린은 바쁜 시간을 내서 영적인 생각을 나누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보려고 했다. 린의 태도에서 그 방문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때 들은 가르침과 친구가 되어 준 린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2년이 흐른 후, 플랜시스가 우리 와드로 이사를 왔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와드는 아니었다. 나는 아직도 교회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에게는 어린 두 딸이 있었는데, 교회 보조 조직 덕분에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는지 알 수 있었다. 내 방문 교사인 플랜시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방문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웃으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한번은 정말 바쁜 오후에 플랜시스가 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 플랜시스는 내가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내가 아이들을 돌보는 사이에 불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휘저어 주었다.

여러 해가 흐른 후 나는 이사를 갔다. 정든 교회 친구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새로 간 ‘우리’ 와드의 상호부조회에서 강한 간증과 넓은 가슴을 지닌 여러 자매들을 곧바로 만날 수 있었다. 상호부조회 교사는 예쁘게 꾸민 할 일 목록을 나누어 주고는 매일 해야 할 일 중 “친절하라”는 일을 우선시하라고 했다. 옆에 앉아 있던 자매들과 나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 느꼈는데, 특히 그 취지가 상호부조회의 모토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모로나이서 7:46)를 잘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한 개척자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어린 소녀 시절에 그 여성과 그녀의 가족은 멀리 떨어진 후기



성도 공동체에 가서 사람들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선지자에게서 받았다. 그 무렵에 그녀의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죽는 비극이 발생했다. 어머니는 정신을 잃었고 가족들에게는 깊은 슬픔이 감돌았다.

어느 날 그 소녀는 창문 밖을 내다 보고 있었다. 눈에 보이는 저 먼 곳까지 눈이 쌓여 눈은 그 작은 집 주위를 담요처럼 덮고 있었다. 지평선 끝을 바라보는데, 집 쪽으로 걸어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천천히 다가오는 두 명을 소녀는 곧 알아보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방문 교사였다.

그 이야기에 마음이 찡했다. 나는 1983년 5월에 침례를 받았다. 내가 직접 방문 교사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의 값[이] 진주보다 더한” 수많은 “현숙한 여인”(잠언 31:1)들과 함께하는 일이 즐겁다. 또한 서로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애쓰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다. ■

방문 교사는 복음을 나누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도 전한다. 방문 교사에게 방문을 받는 자매들은 친절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려는 방문 교사들과 함께 교분을 나누면서 강화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줄리 비 벡,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일”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12쪽; 헨리 비 아이어링, “영원히 지속될 상호부조회의 유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21쪽을 참조한다.

방문 교사는 그들의 봉사로 어떻게 축복을 받는가?

바바라 톰슨 자매는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만한 말씀을 전했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0쪽)

“방문 교육을 할 때면 언제나 좋은 느낌이 듭니다. 보통은 제가 방문하는 자매보다 제가 더 고양되고, 사랑받으며,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이 커집니다. 봉사하려는 소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방법을 계획해 놓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일지에 방문 교육 또는 가정 복음 교육에 대한 간증을 적어보도록 한다.

자녀가 몰몬경을 사랑하도록 도우려면

우리는 자녀에게 몰몬경 내용을 가르칠 때 이러한 방법이 유용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클라이드 제이 윌리엄스
교과 과정부

아 내와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다섯 아이의 마음에 몰몬경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싶은 바람이 매우 컸습니다. 저희는 자녀가 경전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려면 목수가 그러듯이 여러 가지 도구를 쓸 때 유용하며, 그것이 또한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활용할 도구나 기술을 익히는 것과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자녀가 몰몬경을 삶에 적용하고 자기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도울 때 여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전을 이해하는 정도, 경전이 참되다는 우리의 간증, 경전에 대한 우리의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르치며

경전 언어가 다소 생소하고 어린 자녀의 어휘력이 부족해서 몰몬경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짧으며 경전 공부 시간도 짧아집니다. 우리는 가족 경전 공부를 할 때 그림이 있는 경전 자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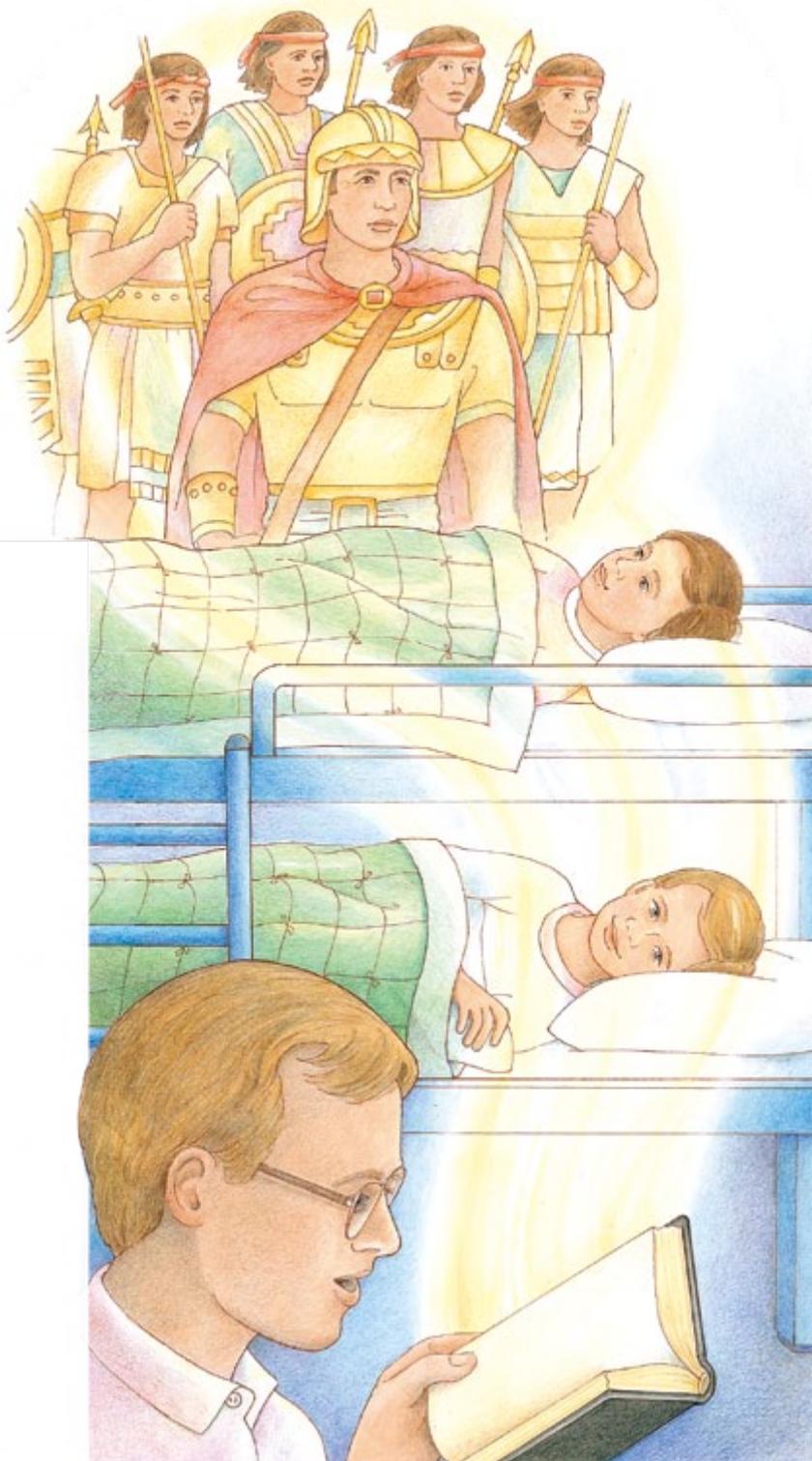
또한 경전 공부 시간에 읽고 배운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 잠자리에서 경전 이야기를 읽어 준 적이 많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제 딸은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들은 이야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침대 옆에 앉아서 경전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저희는 그 이야기를 정말로 좋아했고 자꾸 다시 들려 달라고 떼를 썼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어렸어도 그 이야기에서 영을 느꼈고 이야기에서 들은 그 인물들이 용감하고 신앙심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의 상황에 맞춰 공과를 수정하고

물론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몰몬경과 다른 경전을 직접 읽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침대 이불을 둘러싸고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 아침 경전을 충실하게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아이들은 듣고 있었으며 내용을 기억했고 또한 그것이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는 과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정의 밤 시간에도 경전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종종 가족 중 몇몇이 경전 이야기를 몸짓으로 설명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그 내용을 맞추는 몸짓 놀이와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여러 가지 단서를 주면 그 단서로 몰몬경 속 등장 인물을 맞히는 “나는 누구일까요?”라는 놀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나이가 들자 이제는 공과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맞게 가정의 밤을 하면서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몰몬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가르침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엘마서



39장에서 엘마가 아들 코리엔톤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활용해 외설물을 피하는 것과 도덕성에 대한 공과를 했습니다. 엘마서 3장에 나오는 애플리싸인 이야기에서는 신체에 문신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훌륭한 공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 대처하는 올바른 방법은 니파이(니파이전서 7:20~21; 16:4~5)와 야곱(니파이후서 2:1~3), 그리고 코리엔톤(엘마서

우리는 종종 잠잘 때 몰몬경을 읽어줍니다.

39:1, 10)의 삶을 토대로 준비했습니다. 엘마서 14장 12~28절에 나오는 엘마와 애플레크의 엄숙한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 인내하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나 다른 많은 문제들을 다루면서 배운 중요한 원리는 아이들의 삶에서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한다

우리는 경전을 자녀와 함께 읽는 것과 더불어 읽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도록 질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난이도의 질문을 하느냐는 연령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자녀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적용하도록 가르치고, 또한 몰몬경에는 새롭게 발견할 내용이 많다는 점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니파이가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 왔다”고 말했지만 그 다음 줄에서는 반대되는 내용, 즉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다”(니파이전서 1:1)고 말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토론을 하면서 주님이 니파이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분의 비밀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 주셨다는 점을 발견해냈습니다.(니파이전서 1:1, 20)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때 가장 잘 배웁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 몰몬경을 평생 사랑하고 활용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도울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실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가 몰몬경에 실려 있음을 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보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을 알게 되며 몰몬경에 대해 느끼는 바를 느끼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간증이 강화되고 몰몬경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자신의 자녀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몰몬경에서 답을 얻다

사라 디 스미스

지 상에서 보내는 우리의 여정이 결코 수월하지만은 않겠지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 인생의 폭풍우를 홀로 감당하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큰 도움 중 하나는 몰몬경이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충만한 복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몰몬경을 탐구하면 영이 우리의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다.

“제가 아는 그 어떤 책 중에서도 몰몬경은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가장 위대한 원천이 됩니다. ……

실질적인 문제로 번민하는 사람들이 몰몬경을 읽으면서 삶에 찾아 드는 평안을 느낀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몰몬경을 통해 영적 인도를 받은 예는 셀 수도 없습니다.”¹

자신이 찾던 답을 몰몬경에서 찾은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그레그 라슨(가명)은 어린 시절에 복음을 배웠지만 이후에 교회에서 멀어졌다. 그레그는 마약에 빠지고 범죄에도 연루되어 감옥에도 수감되었다. 그는 삶을 바꾸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레그는 이렇게 썼다. “이곳 와드 형제님들이 감옥으로 오셔서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 한 분은 몰몬경을 읽는다면 제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교회에 다시 나갔지만,

과거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은 여전했어요. 그런데 몰몬경을 계속 읽으면서 엘마서 19장 33절에 나오는 라모나이 왕의 백성들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으며, [그들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러한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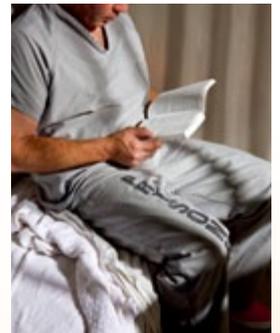
그레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힐라맨서 15장 7절에서 발견했다. 이 구절에서는 “신앙과 회개가 ……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가르친다.

“그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저를 도와주시리라고 영이 확신을 전해 주었어요. 감독님께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의 죄를 구주 발치에 놓자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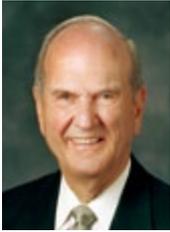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

미국 아이다호 주에 사는 로라 스웬슨은 어느 날 풀이 죽은 채 눈물을 머금고 집에 돌아왔다. 아직 미혼인 데다가 꿈꾸어온 대학과 직업에 대한 계획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과연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로라는 적었다.

“몰몬경을 펼쳐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니파이전서 18장 처음에 나오는 네 구절을 읽으면서 그것이 제 걱정과 대한 응답임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는 니파이가 자신의 가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만든 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졌으며 ‘사람들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 보여 주신 방식을 따라’(1~2절) 지어졌습니다. 니파이는 배를 만드는 동안 자주 주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엘마서 19장 33절에 나오는 라모나이 왕의 백성들에 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으며, [그들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러한 변화가 생기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돕습니다

“[몰몬경은]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고자 하십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증진하고자 하십니까?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장로, “몰몬경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5쪽.

마침내 배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좋으며 그 숨씨가 심히 훌륭하였습니다.’(4절)

저는 제 여정이 ‘정교한 숨씨’로 계획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방식과는 맞지 않겠지만, 주께 인도를 구한다면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둠이 드리운 순간에 등갯불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에는 한 번도 계획해보지 못했던 일을 찾아 큰 보람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약을 발견하다

온두라스에 사는 아드리안 파즈 잠브라노는 청소년 시절, 성경에 예루살렘 주변 지역만 언급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국가에도 방문하셨는지 알고 싶었다.

아드리안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 두 분이 저희 집을 찾아 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저에게 몰몬경을 보여주며 그리스도께서 아메리카 대륙을 방문하신 기록인 제3니파이를 읽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읽는데 청소년 시절에 느끼던 의문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몰몬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미대륙을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드리안과 그의 아내는 교회가 참된지 알기 위해 함께 기도했고, 간증을 얻었다. 그들은 침례와 확인을 받았으며, 일 년 후에는 가족이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가족 부양에 대한 해답

미국 뉴멕시코 주에 사는 에릭 제임스는 서른 살에 신장병 진단을 받았다. 젊은 아버지였던 에릭은 망연자실했고 과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에릭은 몰몬경에서 니파이가 좋은 강철로 만든 활을 부러뜨리자 자신과 같은 의문을 품었다는 내용을 읽게 되었다. 하지만 니파이는 나무로 활을 만들어 가족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니파이전서 16:18~23, 30~32 참조)

에릭은 이렇게 말했다. “니파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영혼이 찬란한 빛으로 채워지는 듯했습니다. 그 전까지 제 건강은 니파이의 강철 활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은 것은 마치 활이 부러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서 신장 이식이라는 나무 활로 저를 축복해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장 이식으로 가족을 돌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십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최선을 다해 계속 가족을 부양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도구

자녀들이 아직 어렸을 적에 아르헨티나에 사는 후안 호세 레사노비체는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는 방법에 관해 질문이 생길 때면 몰몬경을 펼쳤다. 후안은 이렇게 적었다. “아내와 저는 몰몬경을 이리저리 넘기면서 아이들을 위한 영감을 줄 부분을 찾아보았고, 그럴 때마다 늘 답을 발견했습니다.”

레사노비체 부부는 자녀들이 니파이전서 3장 5~6절에 나오는 니파이의 모범에 주목하게 하여 순종을 가르쳤다.

“네 형들은 내가 그들에게 요구한 일이 어려운 것이라 하며 불평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일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요, 이는 주의 명령이니라.

그런즉 같지어다, 나의 아들이, 내가 주께 은총을 입으리니, 내가 불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후안은 이렇게 적었다. “저희는 아이들에게 니파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존중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저희 가족은 니파이처럼 공손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배우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며 저희 말을 잘 들었으니까요. 아직도 저희 가족은 더 많이 발전해야 합니다만 저희에게는 몰몬경이 있어 목표에 도달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됩니다.”

중독이란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

미국 유타 주에 사는 수잔 룬트는 음식 중독과 싸우면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수잔은 몰몬경을 펼쳐서 형들에게 손과 발이 결박되었다가 풀려난 니파이 이야기를 읽었다.

“주여 주를 믿는 나의 신앙을 좇아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 내게 힘을 내리사 나로 하여금 나를 묶은 이 결박을 끊게 하시옵소서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결박이 풀렸[느니라.]”(니파이전서 7:17~18)

수잔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성구는 중독이라는 굴레에 얽매인 제 심정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파이가 자신을 구해 달라고 간구하자 즉시 실제로 결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저의 결박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제가 곧바로 중독을 극복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내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마음과 생각과 몸을 얽어 맨 굴레가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제가 중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잔은 큰 진척을 보였으며, 몰몬경에서 받은 영감 덕분에 분노, 이기심, 자만심을 비롯하여 자신을 동여맨 다른 습성들도 고칠 수 있었다. 수잔은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두 이 몰몬경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압니다.” ■

주

1. M. Russell Ballard, in “We Add Our Witness,” *Tambuli*, Dec. 1989, 13.

몰몬경에서 얻는 해답

-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니파이전서 4:6; 앨마서 37:36 참조)
-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가?(니파이전서 5:1~9 참조)
- 일지는 왜 계속 써야 하는가?(야곰서 1:2~4; 앨마서 37:2~4; 힐라만서 3:13~15 참조)
- 어떻게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가?(앨마서 15:18 참조)
- 부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앨마서 17:2~12 참조)
- 무엇에 관해 기도해야 하는가?(앨마서 34:17~27 참조)
- 속죄는 내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앨마서 36장 참조)
- 누군가가 불친절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앨마서 60~62장 참조)
- 가족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힐라만서 5:12; 모로나이서 8:2~3 참조)
- 왜 교회에 참석해야 하는가?(모로나이서 6:5~9 참조)

학 습 제언: 자신만의 질문 목록을 만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공부하면서 답을 찾아본다.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지면 회원들은
“하늘로서 오는 표적과 기사에 점점 덜
놀라지 않게 된다.”





사진 촬영: 애덤 시 올슨, 명시된 부분 제외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세계의 불가사의의를 재발견하고 영적인 무감각을 극복하다

치로 비야비센시오는 페루 쿠스코 지역에서 여행 안내자로 3년 간 일하면서 잉카 제국의 유명한 “잃어버린 도시”인 마추픽추에 여행객을 거의 400번 정도 인도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 번 방문했지만 세계 불가사의의 다양한 면을 담고 있는 이 지역은 여전히 그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이다.

“언제나 새롭게 배울 무엇인가가 있죠.” 비야비센시오는 말한다. 마추픽추에서 여러 시간 동안 여행객을 안내하는 것은 비야비센시오에게 특별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그 경이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잘 안다. 몇몇 동료들은 여행 안내를 45분만에 끝내버린다. 비야비센시오는 “흥미를 잃은 거죠”라고 말한다.

차스키 와드 회원이자 추코 페루 인티라미 스테이크의 고등평의원인 비야비센시오는 동료들이 그렇게 흥미를 잃는 이유를 이해하면 세계의 또다른

불가사의이자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라는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 (니파이후서 25:17)에 더 큰 흥미를 갖게 된다고 믿는다.

경이로움을 잃을 때 찾아오는 위험

1500년대 말기에 잉카인에게서 버려지고 에스파냐인 모험자에게도 발견되지 않았던, 페루 안데스 산맥 고지에 자리한 이 고립된 도시는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에게 잊혀져 있었다. 20세기가 되어 외부 세계에 알려지자 수많은 연구자들과 관광객이 발길을 들이게 되었다.

수십년 간 조사한 끝에 “일부 사람들은 마추픽추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여 새로 발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비야비센시오는 말한다. “모든 것을 발견했거나 또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일이나 노력을 포기하거나 그 대상이



연구자들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 그 보상으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지식을 더 얻었다.

더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비아비센시오는 그러한 자만심이 교회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시간이 흐르고 익숙해지면 회원들은 “하늘로써 오는 표적과 기사에 점점 덜 놀라지 않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믿지 않기 시작[하게 된다].”(제3니파이 2:1)

경이로움을 잃게 되면 회원들은 연사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 이미 모든 걸 알잖아, 주일학교에 참석하지 않았도 돼, 그 공과는 전에도 들었잖아, 오늘은 경전 공부를 하지 않았도 돼, 거기에 새로운 것은 없어와 같은 사탄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이 사탄[은] ……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제3니파이 2:2)

등산을 할 때처럼 복음 공부에 대한 열정에서 정상과 계곡을 경험하는 것은 낯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배우는 과정에서 그 소강 상태가 평생 지속된다면 영적으로 이해해 “가[지게] 된 것조차”(니파이후서 28:30; 또한 마태복음 25:14~30 참조)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

경이로움을 다시 키우며

비아비센시오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고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데 다음 세 가지 진리가 도움이 되었다.

1.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다.

비아비센시오는 선교 사업 동안, 그리고 종교 교육원 교사로 봉사하면서 매우 열심히 복음 공부를 했다. 그리고 새로운 원리든 아니든 이미 아는 원리를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든 언제나 새로 배울 것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 배운 영적인 지식이 종종 현재 직면하는 어려움 또는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 알아야 했던 지식이었다는 점이다.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알지 못해 새로 배워야 할 무엇인가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는 데에는 성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는 지식이 풍부한 교사가 필요하다.(요한복음 14:26 참조) 비아비센시오는 혼자 또는 아내와 함께 경전을 공부하거나 반이나 모임에 참석할 때 특정 구절을 얼마나 자주 읽었는지 아니면 특정 개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영은 제가 전에 절대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을 가르치시죠. 성신이 교사이십니다.”

3. 무언가를 배우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운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인 개념이다.¹ 배우려고 갈망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참여하고 배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앨마서 32:27 참조)

“배우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경이로운 보상

비아비센시오에게 마추픽추는 계속 세계의 불가사의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조사를 계속하는 한 그 보상으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지식을 더 얻기 때문이다.

한 세기가 지나도록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고고학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매장지와 도자기, 그리고 심지어는 테라스 형태로 된 건물 구조 등을 발견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마추픽추와 잉카 제국에 경이로움을 더해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비야비센시오는 “노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복음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마추픽추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것들이 기존 지식에 더해져 연구자들이 더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 자, 그에게는 더 큰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이윽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에 이르고 이윽고 이를 전부 알기까지 이르[게 된다.]”(엘마서 12:10; 또한 교리와 성약 50:24 참조)

“복음은 끊임없이 흐르는 생수와 같아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그 생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비야비센시오는 말한다.

경이로운 기이한 일

비야비센시오가 마추픽추 절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자 다른 여러 여행객들이 저마다 무리를 지어 고대 건물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비야비센시오는 흥미를 잃은 동료 안내자들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한다.

복음에서 얻는 경이로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단지 그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축복이

된다. 비야비센시오는 말한다. “사람들의 삶에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변화는 그 자체로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서도 경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 1.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16쪽.



경전을 읽기 위한 동기 찾기

월퍼 몬테스 레온

우리는 경전을 읽는 동기를 찾고 성신의 인도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경전을 읽으면서 기뻐해야 한다. 즉, 경전에 담긴 메시지를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느껴야 한다. 단순히 글자만을 획획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훌륭한 복음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경전을 탐구할 때마다 더 많이 배우고 경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종종 교회 표준 경전을 통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평안을 느끼고 생각이 고취될 때 우리는 성신을 통해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게 된다.(교리와 성약 8:1~3 참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심이사도 정원회

일상에서 누리는 축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받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고 삶의 역경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누 가는 제자 한 명이 주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누가복음 11:1)라고
간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누가복음 11:2~4; 또한 마태복음
6:9~13 참조)

주기도문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태복음 6:11; 또한 누가복음 11:3
참조)라는 간청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돌려야 할 만큼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 즉 하루를
사는 데 필요한 음식일 것입니다. 또는 만성
질환이나 더디고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견딜
영적인 힘과 체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과를 가르치거나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날의
책임이나 할 일에 관련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즉 그날 필요한 도움과 자양분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주님의 권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며, 매일 그분의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작은 것까지도
아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시려는
분리심을 나타냅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신앙으로 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야고보서 1:5) 참으로 위안을 주는
말씀이지만 단순히 하루하루 도움을 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신화: 다이안 웨이트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즉 그날에 필요한 도움과 자양분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신뢰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백만 명은 죽히 넘을 이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수로 한 지역에서 오래 사냥을 하며 생활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유목민처럼 생활했기에 충분한 곡식이나 가축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매일 그날 필요한 만나를 거두라고 지시하셨으며, 다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를 분량을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의 구체적인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백성들은 하루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거두고, 남는 것은 저장해 두려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출애굽기 16:19~20)

그러나 약속대로 여섯째 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거두어 들었을 때에는 만나가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출애굽기 16:24~26 참조) 또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던 일부 백성들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지만 “언지 못(했습니다).”(출애굽기 16:27~29 참조)

여호와께서는 40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조상의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그 백성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신앙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컨대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에도 계속 그날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주실 것이라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주님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립할 형편이 되자 그들은 스스로를 부양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간구할 때, 즉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간구할 때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능동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 받기 얼마 전, 저는 수년 동안 재정 문제를 겪었습니다. 심각성과 긴급함 면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따금 가족의 안위가 위협을 받을 때면 재정 파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적적인 도움으로 우리를 구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진지하고도 열렬하게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음에도 결국에는 아니라는 응답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작은 단계마다 매번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의 모든 재원을 다 쓰고도 긴급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 도움이 절실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방도가 없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도움을 간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도움은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평안함이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상황이 바뀌거나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으며, 어떤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다른 재원이 때마침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괴로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문제에 빠른 해법이 없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진정으로 기도하여 답을 얻는 법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실제로 행사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이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주어지는 만나 역시 역사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만나만큼 실질적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법과 날마다 그분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일주일치, 한 달치, 혹은 일 년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의 더 작은 부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루치로 작게 나누어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여호와께서는 40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 조상의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그 백성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신앙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수 있는 정도가 한번에 단 하루, 혹은 하루 중 일부만일 때도 있습니다.

1950년대에 어머니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후로도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를 수십 번 받아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시에 할머니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그 이후로도 계속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그때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십니다.

“당시 나는 너무나 아팠고 몸도 약했단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아, 어머니, 앞으로 이런 치료를 열여섯 번이나 더 받아야 한다니, 더는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오늘은 할 수 있겠니?’ 하시더구나.

‘네.’

‘그럼, 얘야, 오늘은 그만큼만 하면 된단다.’ 한 번에 하루만, 한 번에 한 가지만 감당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 늘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영은 앞을 내다보아야 하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오늘, 즉 바로 이 순간에만 집중해야 하는 때는 언제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실현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받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견디는

우리는 또한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루치 하늘 양식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발전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법을 배우는 데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루치 하늘 양식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발전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에베소서 4:13) 이르는 것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성품에 새롭고도 훌륭한 습관을 추가하는 것, 혹은 나쁜 습관이나 중독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오늘 노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아마도 여러 날, 심지어 몇 달 혹은 수년까지라도 노력을 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즉 날마다 필요한 도움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봉사하셨던 엔 엘돈 태너(1898~1982)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잘 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우리는 목표를 신중히 선정하고, 왜 그러한 목표를 세우는가를 생각하면서 여하한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오늘 하루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¹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최근에 일상에서 하는 단순한 일들, 이를테면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 등을 꾸준히 행하는 일이 성공적인 가정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을 하는 우리의 한결같은 중대한 영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²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며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욱 더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실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며 여기에는 거의 깨닫지 못할 만큼 느린 성장과 변화가 포함됩니다.”³

봉사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루 분량만큼 하늘 양식을 간구할 때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마가복음 10:45) 오신 주님을 더욱 닮고자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이 원리를 잘 실천하십니다. 어떤 날이든 또는 하루 중 어느 때라도 그분은 마음속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방안을 알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섬없이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감독으로 봉사하시던 시절에 있었던 한 일을 살펴보면 작은 노력이라도 영의 역사하심을 통해 훌륭한 결실을 거둘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찾아간 사람은 해럴드 깬러셔였다.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에서 활동적이었지만 해럴드는 아니었다. 그의 딸인 샤론이 몬슨 감독에게 아버지가 다시 활동 회원이 되도록 ‘뭔가를 해 달라’고 부탁한 후였다. 어느 날 그는 감독으로서 해럴드를 찾아가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더운 여름날 그는 해럴드의 집 현관 방충망을 두드렸다. 방충망 너머로 해럴드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신문을 읽는 모습이 보였다. 해럴드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무뎠게 물었다. ‘누구요?’

‘감독입니다.’ 몬슨 감독이 대답했다. ‘만나 뵈고 가족과 함께 모임에 나오시라는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안 갑니다. 나는 바쁜 사람이요.’ 무성의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얼굴 한 번 쳐다보지도 않았다. 몬슨 감독은 그에게 이야기를 들어주어 고맙다고 말하고 그 집을 떠났다. 해럴드는 이후로도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그 가족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신
주님을 더욱 닮고자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이웃을
섬기는 일에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를 갔다.

수년이 흐른 뒤 갠러서 형제는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만나기를 청했다.

..... 얼마 후 두 사람은 만난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해럴드가 말했다. '오래 전 그 여름에 자리에서 일어나 들어오시라고 하지 않았던 것을 사과하러 왔습니다.' 몬슨 장로는 그에게 교회에서 활동적인지 물었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 워드 감독단 제2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라는 감독님의 초대와 제가 부정적으로 응했던

일이 하도 마음에 걸려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⁴

매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게 되면 일상 생활의 사소한 일들, 즉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 결혼 생활에서 가끔 거창하고 돈이 드는 일보다는 늘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을 주며 관심을 보이는 편이 사랑을 유지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슬그머니 우리 삶에 들어와 자신의 일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누구든 좋은 선택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 외설물과 음란한 영상을 피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대부분, 가상 세계나 인터넷 상에서 외설물이 있을 만한 곳에 가지 않는 자제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설물이 개탄스러울 정도로 만연해 있기에 이와 무관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도 뜻하지 않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즉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앓을 의자까지 내줄 필요는 없지요.”

다른 파괴적인 영향과 습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싹트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주의를 기울인다면 미래의 어느 날 부주의 때문에 해악이나 약점이 우리 영혼에 뿌리내린 것을 뒤늦게 깨닫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 중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일조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계획과 꿈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제력과 성품과 질서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여러분의 필요 사항, 즉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과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그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생각하고 다음 날을 더 나은 날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만나를 두셔서 그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루를

돌아보는 가운데 어떤 일은 지속시키고 어떤 일은 변화시키도록 해 주신 그분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자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루와 영생을 향한 또 다른 한 걸음에 대해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만나가 상징하는 구속주가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요한복음 6:48~51)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속죄 권능과 그 범위는 무한하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의 속죄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 매일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요한복음 17:20~23 참조)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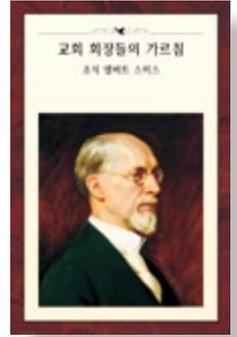
2011년 1월 9일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 말씀에서 발췌. speeches.byu.edu에 접속하면 영어로 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주

1. 앤 엘돈 테너, “오늘 저는 …… 하겠습니다”,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27~28쪽.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9쪽.
3. 에즈라 테프트 벤슨, “마음의 큰 변화”, *성도의 빛*, 1990년 3월호, 7쪽.
4. Heidi S. Swinton, *To the Rescue: The Biography of Thomas S. Monson*(2010), 160~161.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의 속죄요
은혜입니다.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산 사람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이 남긴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복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살았음을 알 수 있다.

테드 반스
교육 과정 편성부

힘 겨운 하루가 끝나갈 무렵, 존 에이 윗소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일과를 마치고 나니 무척 피곤한걸.” 그는 논란이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맡은 일에 대한 엄청난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지쳤어.”라고 그가 말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조지 앨버트 스미스가 들어왔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라네. 자네와 자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떠올랐어. 그래서 자네를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 들렀네.’

…… 나는 결코 그 일을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하다가 헤어졌고 그는 집으로 갔다. 내 마음은 고무되었다. 더는 지쳤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여러 해가 흐른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된 윗소(1872~1952) 장로는 이 일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조지 앨버트 스미스다운 방법이었다. …… 그는 자신의 시간과 힘을

아끼지 않았다.”¹

1945년에서 1951년까지 교회 제8대 회장으로 봉사한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는 우리에게 만약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삶, 특히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올바르고 일관성 있게 실행하며 [사는 것은] …… 이 사업이 참됨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²

2012년도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과정인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에는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과 강한 간증을 보여주는 일화가 담겨 있다. 그 책에 소개된 이야기와 가르침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

친절의 힘

어느 무더운 여름날, 인부 몇 명이 스미스 회장 집 밖 길가를 수리 중이었다. 작업이 힘들어지고 태양이 점점 더 뜨거워지자, 인부들은 음란하고 불경스러운 단어를



내뱉기 시작했다. 그러자 한 주민이 다가가 근처에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이 산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불쾌한 언어를 사용한 데 대해 그들을 나무랐다. 그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더 심하게 욕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스미스 회장은 주방에서 한 주전자 분량의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유리컵과 함께 쟁반에 들고 나와 인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 여러분, 무척 덥고 힘들어 보이시네요. 이리 오셔서 우리 집 나무 아래 앉아 시원한 음료수 한 잔씩 드시겠어요?”

고맙고도 숙연해진 마음에 인부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반가운 휴식을 취한 후, 나머지 작업을 공손히 그리고 조용히 끝마쳤다.³

이러한 일화들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친절의 정신으로 문제에 대처”⁴할 수 있다는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신념을 보여준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는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친절과 사랑과 인내와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범하는 잘못으로부터 이끌어낼 힘을 주셨습니다. …… 저에게는 …… 사람을 판단할 특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가능하다면 그들을 해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는 길로 돌이킬 특권은 있습니다.”⁵

“친절을 베푼다면 이웃과 친구들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위안과 만족을 더해줄 수 있을까요! 친절이라는 낱말을 굵게 써서 공중에 장식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절은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완고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⁶

복음 나누기

스미스 회장은 복음을 나누는 일을 “최고의 친절”⁷로

보았다. 그는 다른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훌륭한 점들을 인정하고 무척 기뻐했지만 회복된 복음에는 인류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하고 가치 있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중에 한 번은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제가 이제껏 배운 바로는 당신 교회는 어느 다른 교회만큼이나 참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칭찬을 해 준 것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언급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대표하고 있는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사람의 자녀들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곳에서 제 의무를 소홀히 한 셈입니다.’”⁸

우리가 가진 메시지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후기 성도들만이 복음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필요합니다.”라는 점이라고 스미스 회장은 가르쳤다.⁹

이러한 이유로, 스미스 회장은 후기 성도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베풀어 주신 훌륭한 것들을 그분의 모든 자녀들과 나누고자 강하고 열렬하게 바라”기를 원했다.¹⁰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우리가 [복음]의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열의를 쏟아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¹¹

스미스 회장의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은 그가 “열렬히” 복음을 나누는 것에 관한 전형적인 예를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이렇게 관찰했다. “저는 스미스 회장님과 함께 여러 차례 기차여행을 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스미스 회장님이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가방에서 전도용 소책자를 꺼내어 호주머니에 넣은 다음 승객들 사이로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회장님은 친절하고 기분 좋은 태도로 여행객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얼마 안 가서 저는 회장님이 새로 사귀 친구에게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교회를 세운 이야기라든가,

성도들이 나무에서 이동한 이야기, 유태로 가기 위해 평원을 횡단하며 겪은 시련과 곤경, 혹은 몇 가지 복음 원리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행이 끝날 때까지 이 승객에서 저 승객으로, 대화는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스미스 회장님과 교분을 맺어 온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그분이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위해 선두에 선 첫 번째 선교사였음을 배웠습니다.”¹²

자녀를 가르치며

조지 앨버트 스미스와 그의 아내인 루시는 “[그들의]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는]”(교리와 성약 93:40) 신성한 권한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딸 에디스는 아버지가 가르칠 기회를 활용했던 일에 대해 말했다. 에디스는 피아노 수업을 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차를 탄 일이 있었는데 승무원이 요금 받는 일을 깜빡했다. “무슨 까닭인지 승무원이 날 그냥 지나쳤어요.” 에디스는 이렇게 말했다. “목적지에 다 오도록 손에는 요금이 그대로 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공짜로 차를 탔다는 생각에 무척 우쭐해졌어요.

…… 저는 신이 나서 아버지께 달려가 그 행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으셨습니다. 저는 대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애야, 승무원이 모른다 하더라도 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잖니. 그러니까 네가 받은 것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직도 세 사람이나 있는 거란다.’”

결국, 에디스는 길모퉁이로 돌아가 요금을 냈습니다. 에디스는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정히 실수를 잡아주셨던 현명한 아버지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때 만약 눈감아 주셨다면 제 행동을 허락하신



스미스 회장이 매니 튀르쿠아즈(왼쪽)와 매뉴엘리토 비개이에게 물문경을 보여주는 모습.

것으로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¹³

스미스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사랑은 자녀가 의롭게 살도록 고무하는 힘을 발휘한다고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자녀가 도덕률을 지키도록 가르치십시오. 사랑의 팔로 그들을 감싸서 도처에 만연한 어떤 악의 유혹에도 빠지고 싶지 않도록 하십시오.”¹⁴

“우리의 의무, 더 정확히 말해 우리가 받은 의무이자 특권은 충분히 시간을 내어 자녀들을 보호막으로 둘러싸고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사랑을 받아 자녀들이 우리의 조연과 권고를 기꺼이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¹⁵

영원한 가족

조지 앨버트 스미스와 루시 스미스가 결혼한 지 40년쯤 되었을 때부터 루시는 노쇠한 건강으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야 했다. 스미스 회장은 할 수 있는 만큼 아내를 걱정하고 위안을 주고자 했지만, 총관리 역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했으므로 종종 집에서 떠나 있어야 했다. 어느 날 그가 한 장례식에서 말씀을 마치자 누군가 즉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쪽지를 건넸다. 후에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장례식장을 떠나 한걸음에 달려갔으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사랑하는 아내가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장례식에서 말씀하는 동안 아내는

스미스 회장은 복음을 나누는 일을 “최고의 친절”로 보았다. “후기 성도들은 유일하게 복음 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지녔으며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유 때문이다.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헌신적인 배우자를 잃었으며, 이제 아내가 없어 외로울 것이다.

가족이 너무나 괴로워할 때에도 우리가 충실하다면 루시와 재회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위안을 얻었다. …… 주님께서는 참으로 친절하시며, 죽음에 따른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셨다. 나는 이 점에 대해 크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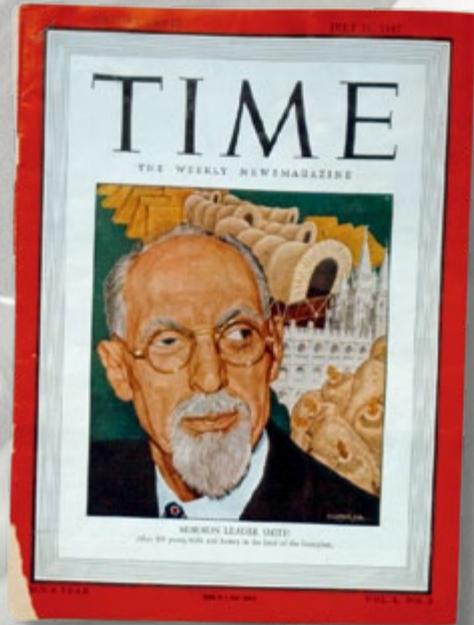
스미스 회장은 구원의 계획에 관한 자신의 간증과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는 성전 의식에서 힘과 위안을 얻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가 이곳에서 맺은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등과 같은 가족 관계가 하늘에서도 계속될 것이며, 이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세에서 상속하도록 정하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국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지닐 때 우리 마음은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제가 만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들이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고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인생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를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쁨은 그들을 다시 만나, 사랑이 넘치는 환영을 받으며, 그들이 저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¹⁷

“죽음은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한 단계에 불과하며, 그분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깨닫게 되면, 사망이 쏘는 것은 사라지고 영생의 실재성을 직시하게 됩니다. 많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이별을 고하라는 부름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한 이별이 닥칠 때, 죽음은 우리가 허락하는 경우,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 삶에 큰 슬픔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보는 것에서 위안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희망 없이 남겨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우리가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그분의 조언과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영원한 행복을 얻으리라는 모든 확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실입니다.”¹⁸



맨 위: 아들 조지 앨버트 스미스 이세와 함께한 스미스 회장, 위: 1947년 타임지에 스미스 회장과 교회 관련 기사가 실리다.

사랑과 봉사

아마도 스미스 회장은 사람들에게 보인 사랑으로 가장 잘 알려졌을 것이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도 마음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심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조직될 때 지상에 전해진 그 훌륭한 은사가 완전히 실현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¹⁹

교회 회장으로서 스미스 회장은 전 세계적인 복지 사업과 그 밖의 다른 시도들을 통해 수천 명의 삶을 축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시간을 내어 개인적인 차원의 소규모 봉사를 했다. 동료였던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엘 에반스(1906~1971)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병실을 돌며 예고도 없이 들어와서 축복을 주고, 격려와 위로를 건네는 회장님의 모습은 낯선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위안을 주고 복돋아 주는 회장님을 사람들은 무척 고마워하며 반겼습니다. …… 도움과 격려를 줄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것이 그분 특성이었습니다.”²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스미스 회장이 보여준 사랑의 예를 나누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길거리 청소부들이 배수로에서 커다란 얼음덩이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일거리가 절실한 일용직 근로자들도 정규 청소부들을 도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얇은 스웨터 한 장만 걸친 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리호리한 몸집에 멋지게 콧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청소부 옆에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같은 아침에는 그런 스웨터 하나로는 부족해요. 외투는 어디 있나요?’ 그 근로자는 외투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옷은 당신 것입니다. 두툼한 모직이니

따뜻할 거예요. 저는 직장이 길 건너에 있으니 괜찮습니다.’ 이 일이 있었던 곳은 바로 사우스 템플 가였습니다. 그날 일과를 보러 교회 관리 본부 건물로 걸어 들어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이었습니다. 그 사심 없고 너그러운 행동은 그분의 다정한 마음을 잘 보여 줍니다. 참으로 그분은 형제를 지키는 사람이셨습니다.”²¹

일상의 사소한 부분

기차에서 동승객들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추운 날 거리 청소부에게 외투를 벗어 주면서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가르침으로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끊임없이 간증을 나눴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전체에 걸쳐 눈에 띄이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분명히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스미스 회장을 지켜본 어떤 이가 한 다음 말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종교는 저온 창고에 고이 보관된 교리가 아니다. 그의 종교는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에게 종교는 그저 감탄하며 바라볼 아름다운 계획보다 더 큰 것으로서 인생 철학 이상의 것이다. 실천을 중시하는 그에게 종교는 사람의 삶과 행동에 깃든 열이다. 비록 그것이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시원한 물 한 잔을 나누는 일일지라도 말이다. 그에게 종교는 행위를 통해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빛은 일상 속 세밀한 부분까지 두루 미쳐야 한다.”²²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그를 보좌한 제이 르우벤 클라크(1871~1961) 회장은 스미스 회장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다. “회장님은 자신이 가르치는 그대로 생활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들중 한 분이셨습니다.”²³ ■

주

1. John A. Widtsoe, 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99;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2011년) xxxvii-xxxviii 참조.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9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223쪽 참조.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223쪽.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227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228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124쪽.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152쪽.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125쪽.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128쪽.
1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150쪽.
12. Preston Nibley,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123쪽.
1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235쪽 참조.
1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240쪽.
1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228쪽.
1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xxvii-xxix 참조.
1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83-84쪽.
1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76-77쪽.
1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14쪽.
20. Richard L. Evans,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11-13쪽.
21. Thomas S. Monson,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13쪽.
22. Bryant S. Hinckley,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2쪽.
23. J. Reuben Clark Jr.,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3쪽.

배터리와 매서운 바람

어느 날, 나는 아이다호 폴스 성전에서 봉사를 마친 후에 두 형제를 태우고 아이다호 폴스 고속도로 상에서 엔진이 멈춰버린 그들의 자동차로 그들을 데려다 주기로 했다. 몹시도 추운 12월이었던 그날 한 친절한 부부가 차를 멈춰서 톰슨 형제와 클라크 형제를 꽤 먼 거리였지만 성전까지 태워 주었던 것이다.

톰슨 형제는 차에 새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확신했다. 나는 톰슨 형제와 근처 자동차 부품 가게로 가서 배터리를 샀고, 내 차에 있는 공구로 배터리를 교환해 주기로 했다.

다행히 내게는 새로 산 장갑과 겨울 재킷이 있었다. 나는 자동차 엔진 뚜껑을 열어 방전된 배터리를 꺼내고 새 것으로 바꿀 준비를 했다.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는 워셔액 탱크를 비롯한 몇 가지 부품을 풀어 옮겨야 했다. 그런데 내 공구들은 미터법 사이즈로 된 모든 볼트에 맞지 않았고 몇몇 나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른 공구들을 사용하여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깥 기온은 거의 섭씨 영하 15도였고 매서운 돌풍이 윈 소리를 내며 소형 트럭들을 스쳐 지나갔다. 끔찍한 추위와 절망스러운 난관이 나에게 엄습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설명하고 볼트와 나사를 풀어주시거나 방법을 찾게 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는 다시 팬치를 붙잡고 꼼짝 않는 나사를 움켜 잡았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풀려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하면서 계속 나사를 풀어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 속 깊은 곳에서 나를 좌절시키며 꼼짝달싹하지 않는 볼트 하나를 또다시 발견했다. 어찌할 도리가 없자 나는 더 큰 믿음으로 더 열심히 도움을 간구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볼트 몇 개를 먼저 푼 다음 배터리 버팀대를 비틀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했다. 얼마 후, 나는 낡은 배터리를 빼낼 수 있었다.

나는 새 배터리를 넣고 감각이 없는 손가락으로 최선을 다해 모든 부품을 재조립한 다음 전기선을 다시 이었다. 톰슨 형제는 자동차 열쇠를 돌렸다. 엔진에 시동이 걸리자 그는 활짝 웃었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엔진 뚜껑을 닫았다. 한 시간 가까이 밖에 있었으므로 딱딱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차에 겨우 탔을 때는 다리에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톰슨 형제와 클라크 형제가 집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지 확인하기



다른 공구들을 사용하여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곰찍한 추위와 절망스러운
난관이 나에게 엄습했다.



위해 그들을 따라갔다. 운전하면서 내 차의 히터가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다리와 발에도 천천히 온기가 돌아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에 대해 깊이 감사드렸다. 돌아오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종으로 나를 보냄으로써 이 형제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분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에 대비하셨으며 나의 신앙을 재확인해 주셨다. ■

시 리 벤딕슨, 미국 아이다호 주

귀중한 소지품

나는 전에 고객 서비스 콜 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동료와 자주 어울리기 어려운 곳이었다. 상사는 우리가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어느 토요일에 전체 점심 자리를 계획했다. 상사는 각자에게 가치 있는 물건을 몇 가지 가져와서 그것이 귀중한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 과제를 생각하던 중 나는 이 모임이 동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종교는 민감한 주제이므로 내가 가져가는 물건과 그것이 나에게 귀중한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에 관해 신중을 기해야 했다.

점심식사 모임을 하는 날, 우리는 모두 서로 더 친해지는 것이 즐거웠다. 점심식사를 한 후, 상사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인 가족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활동 시간을 이끌었다. 그녀는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겪은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몇 다른 동료의 발표가 이어진 후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을 소개하겠다고 설명하며 정의반 반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그 글자가 '의를 선택하라'는 뜻이라는 말과 함께 그 반지를 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후기 성도의 믿음에 대해 질문을 했다. 나는 그 기회를 살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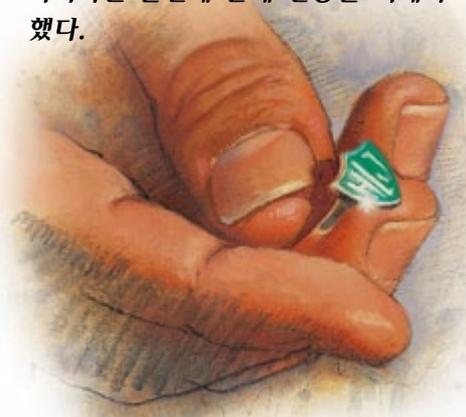
점과 더불어 가족은 영원할 수 있으며,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구주께서 계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또한 선교 사업을 하면서 얻은 몇 가지 경험도 나누었다. 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영을 느꼈고, 동료들도 그러했다.

그날 이후 몇몇 동료는 복음에 대해 다른 질문들을 했고, 나는 그들 중 몇 명을 교회에 초대했다. 그 후 나는 직장을 바꾸었기에 그들 중 복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존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점이 만족스러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복음을 나눌 책임이 있다. 정의반 반지와 같이 작고 단순한 것들을 통해 우리 형제 자매들을 구원할 수도 있는 훌륭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 ■

라파엘 바리오스, 아르헨티나 산타페

종교는 민감한 주제이므로 내가 가져가는 물건에 관해 신중을 기해야 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슬픔이 복받쳐 오르는데,
두 살배기 아들이 텅 빈
담요로 다가와 “안녕,
내 동생 아기가.” 하고
속삭였다.



몰몬경을 읽어라

기쁨으로 가득해야 하는 날이었음에도 우리 마음은 무거웠고 팔에 안을 것은 없었다. 데브라 카엘리아 카터는 예정일인 2010년 4월 26일에 태어났지만 사산아였다.

우리는 병원에서 데브라를 감싸는 데 사용한 분홍색 작은 담요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슬픔이 복받쳐 오르는데, 두 살배기 아들이 텅 빈 담요로 다가와 “안녕, 내 동생 아기가. 사랑해.” 하고 속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벽에 걸린 Friend[프렌드] 잡지에서 나온 포스터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가까이 계시며, 성신은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¹ 나는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열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자 성신이 “몰몬경을 다시 읽으라.” 하고 속삭이는 것을 느꼈다. 나는 몰몬경을 막 끝까지 읽은 상태였지만 그 느낌은 분명하고 뚜렷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몰몬경을 읽기 시작했다. 언필과 형광펜으로 신앙, 기도,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복음 전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에 관한 구절에 모두 표시했다. 니파이, 이노스, 모로나이, 그 밖의 몰몬경 선지자들이 시련을 겪었을 때 했던 일들을 나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려운 시기에 그들의 삶을 채웠던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나도 내 삶을 채워야 했다.

매일 그렇게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팔이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는 느낌을

받았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그분의 속죄 희생에 대한 권능을 느꼈다. 영이 나에게 말했고, 평안함이 감돌았으며, 내 열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왔다. 슬픔에 잠길 때는 경전에서 읽은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힘을 얻었다.

어느 날은 다음 말씀을 읽는 동안 영이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었다.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노니, 그들은 다 같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

어린아이들은 ……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그의 안에 모두 살아 있음이라. ……

이는 보라, 어린아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느니라.]” (모로나이서 8:17, 19, 22)

마치 내 딸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웃음을 지으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는 모습을 보는 듯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건달 힘을 받았고, 영혼에서 불타오르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솟구쳤다. 우리가 속죄와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서로를 성전 성약을 통해 꼭 붙잡는다면,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다시 영원히 결합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몰몬경을 사랑한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또 행하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한다. 몰몬경을 통해 내 삶에 빛이 비치고 내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가득 찬다. ■

제웨린 카터, 미국 버지니아 주

주

1. 일레인 에스 돌튼,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118쪽.

아버지의 신발

여러 해 전, 부모님은 상호부조회를 도와 궁핍한 이들에게 기부할 옷가지며 신발, 기타 물건들을 종류별로 정리하셨다. 그러다 아버지는 물품 더미 속에서 간수가 잘 된 신발 한 켤레를 발견하셨다. 그 순간 아버지는 그 신발을 간직해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다. “이 신발 당신이 신기엔 너무 작아요. 발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자매님들은 몇 마디 농담을 건넸고, 결국 아버지에게 그 신발을 가져가도 좋다고 했다.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을 깨끗하게 닦고 신문으로 속을 채운 뒤, 상자에 넣어 아버지 서랍장 맨 위에 놓아두셨다. 우리는 그 상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명을 받았다. 5년 동안이나 그 상자는 그곳에 그대로 있었다.

어느 날 새로운 가족이 옆집에 이사를 왔다. 그 가족에게는 두 아이들과 6개월 된 아기가 있었다. 내 여동생과 나는 우리 또래인 그 집 두 여자아이들과 금세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며 초등학교에 초대했다. 그 아이들은 무척 좋아하며 우리가 이야기해 준 것들에 관해 진심으로 더 알고 싶어했다.

그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우리 부모님은 그 가족 모두에게 선교사 토론을 듣고 교회에 참석해보도록

권유했다. 그들은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토론을 아주 좋아했고, 우리는 그 가족과 함께 교회에 참석할 생각에 신이 났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자 그들의 딸들은 힘이 없어 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이 더는 교회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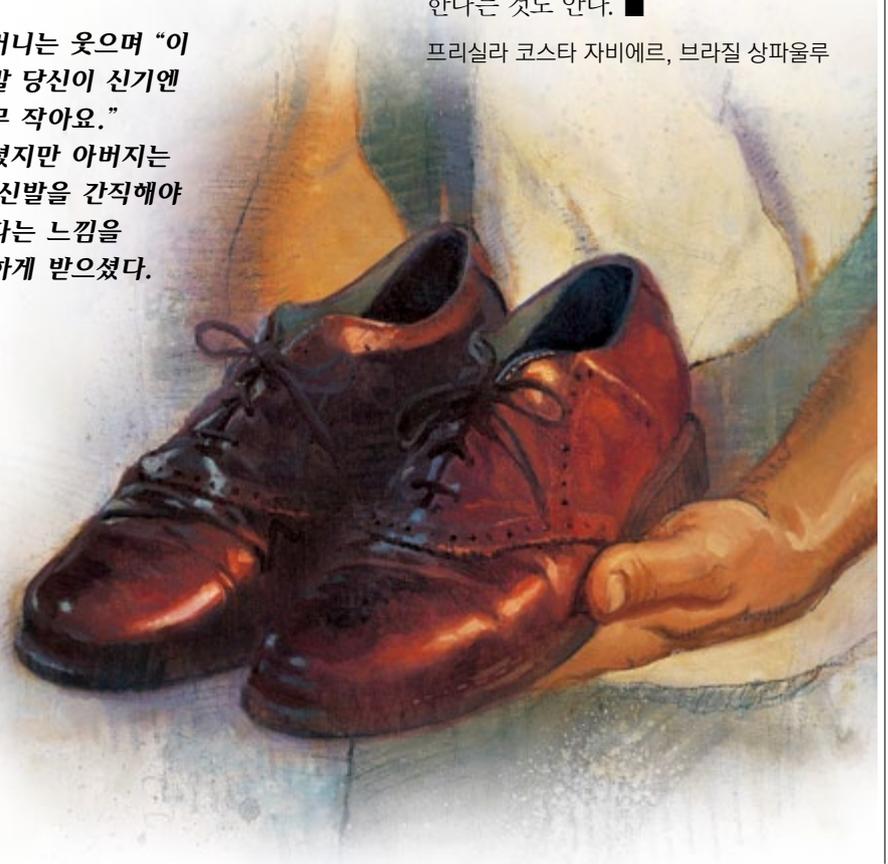
우리는 실망해서 아버지에게 그들의 부모님과 이야기해 보라고 부탁했다. 아버지가 그 부부에게 교회에 참석하는 축복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 아버지가 대답했다. “네, 그건 다 압니다. 문제는 말이죠, 제가 오랫동안 운동화 외에는 다른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모임에 갈 때는 잘 차려 입고 가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웃으며 “이 신발 당신이 신기엔 너무 작아요.” 하셨지만 아버지는 그 신발을 간직해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셨다.

그 순간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아셨다. 아버지의 서랍장 상단에 놓아둔 상자 속 신발은 우리 친구들의 아버지 발에 꼭 맞았다. 그래서 그 가족은 모두 교회에 참석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멋진 일요일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현재 그들은 영원한 가족이 되어 있다.

나는 아버지가 성신으로부터 인도를 받아 그 신발을 간직했다는 사실을 안다. 그 때문에 나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가족들을 찾으면서 항상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성신이 가족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런 가족들을 찾아 그리스도께 데려와야 한다는 것도 안다. ■

프리실라 코스타 자비에르, 브라질 상파울루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받은 과제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보는지 결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기 위해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칼 비 쿡 장로
철십인 정원회

청년 시절,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의 전신인 언어 훈련원에 입소한 저는 독일어를 익히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첫 주가 지나가고 둘째 주도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희 구역에 속한 다른 선교사들이 저보다 더 빨리 발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잡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동안 제가 구사하는 독일어는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걱정하고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르칠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교사로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움을 구하고 신권 축복을 받으며 마음속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공부와 노력을 계속하던 어느 날, 저는 전보다 더 초조함을 느꼈고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동반자와 함께 복도를 걸어내려 가던 저는 관리인의 작은 벽장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동반자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작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대걸레 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통을 덜어주실 것을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 마음 속에 다음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독일어를 잘 하라고 부름을 준 것이 아니란다. 단지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었다.”

저는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봉사할 수 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큰 위안을 느끼며 일어섰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의 기준은 바뀌었습니다. 더는 제 발전과 성공을 동반자나 구역의 동료 선교사들과 비교하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주께서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관해 집중했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해 결눈질하는 대신 이를테면, 그분께서 저의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기 위해 위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언어를 더 빨리, 또는 더 잘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때 느끼던 그런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하나님께 의논 드리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저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밤에는 제가 공부하고 행한 일들을 보고드리기 위해 다시 기도를 드리며 제가 한 노력과 거둔 성공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제 발전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제 자신도 아닌 그분께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35년도 더 지난 그날, 빗자루가 놓인 작은 벽장에서 배운 그 교훈은 제가 평생 수많은 부름과 임무 지명에 임하는 동안 저와 함께 해 왔습니다. 제 능력 이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잠깐, 누가 네게 부름을 주었는가? 너는 누구에게 봉사하고 있는가? 너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하고 자문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평가하는 온갖 잣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잣대들이 특히 청년 성인들에게 가혹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성적을 받지만 그것이 다른 교실이나 가정 또는 그 밖의 인생 경험을 고려한 결과는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외모나 우리가 모는 자동차로 평가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답글을 올려 주는가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학교를 마치고 전에 결혼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휘말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외적인 평가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빨리 칭찬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어찌면 특히 청년 성인들이 도전해야 할 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보는지를 알리고 결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를 알기 위해 위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사무엘상 16:7

참조)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를 바라봅니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활용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개인 기도와 경전 공부로 하루를 시작함으로써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영적인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게 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계획을 알지는 못한다 해도 우리는 그날 자신에게 펼쳐질 계획 중 일부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력을 갖출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겠다고 선택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느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으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올바른 명분을 위해서는 어려운 일도 해낼 것입니다.

받은 가르침에 순응하십시오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잘 따름으로써 “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받은 것을 행하지 못하게 설득할 것입니다. 설사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해도 우리는 자신의 느낌에 진실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스페인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한 뉴질랜드에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스물한 살이 되었을 때 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선교 사업을 나가야겠어요.” 물론 저희는 의로운 결정에 기뻐했지만 그 아이가 십대 시절에 이미 친구들과

**우리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잘 따름으로써
“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하늘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등을 돌리고 번덕스러운 유행의 유희와 허황된 인기의 매력과 순간의 전율을 따라갑니다. 그들의 행위는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꾼 에서의 비참한 경험과 비슷합니다.

그런 행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은 계명을 어기고 꿈을 산산조각내고 희망을 짓밟는 일이라고 간증합니다. 그러한 위험한 수렁은 피하시길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장자권을 지녔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는 한 번의 영광스러운 시도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의로움과 현명한 선택의 축적과 초지일관된 목적과 높은 이상의 결과로 성취됩니다.

우리 시대의 혼란, 양심의 갈등 및 일상 생활의 소란 가운데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은 우리 인생의 닻이 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인생 여정의 이정표”(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말씀, 2007년 11월 13일), 3쪽, speeches.byu.edu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지내는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했으므로 “너는 이미 선교 사업을 했잖아.”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딸 아이는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그렇게 하신 거죠. 이제는 제가 주님께 봉사하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사명을 완수하렴. 봉사하라는 영의 속삭임을 따르도록 하렴.”

저는 오늘 제 딸이 하나님 아버지와 스페인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받은 느낌에 따라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는 인생에서 옳다고 느끼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고 생각되는 일에서 벗어난 것을 하도록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았습니. 부모의 선의의 설득에도 그 아이는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때때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알려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좋은 판단력을 사용해서 훌륭한 선택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택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실수가 두려워서 선택을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을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십시오

뉴질랜드에서 살 때 저희 가족은 때때로 구도자들과 최근 개종자,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종종 응답을 간구한 다음 그 응답이 빨리 오기만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끔은 해결책이 빨리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오거나 기대보다 늦게 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님이 도움을 주실 때까지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는” 태도를 취하십시오. 자신의 위치를 고수한다는 것은 계속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계속해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추가로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은 그분의 시간에 따라 모든 일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잘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언어 훈련원에서 한 경험 이후로 “위를 바라봄”으로써 제 삶에는 거듭 축복이 따랐습니다. 몰몬이 힐라맨서 3장 27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께서[는] 무릇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십니다.]” 저는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자비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해답을 찾아서

젊은이들에게 선교 사업을 나가라고 왜 그렇게 강조하나요?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신 권 의무인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 청남 여러분, 선교 사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다시 함께 만나서”,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5쪽)

선교 사업 준비는 청남이 아론 신권 소유자로서 하는 경험 중 일부입니다. 선교 사업은 그들의 의무이며 청남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의무감을 느껴야 합니다. 물론 단순히 주변의 기대, 혹은 압력 때문에 선교 사업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소망에 따라 선교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교 사업에 관해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권을 받을 때 이미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일을 포함하여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해야 [할]”(교리와 성약 20:59)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만약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다면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수호 천사가 있습니까? 제게 지명된 천사가 있습니까?

경 전에는 “수호 천사”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성역”이란 말로 천사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욘나아서 1:25; 모로나아서 7:22~29 참조)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며”(니파이후서 32:3) 종종 위로하고, 인도하며, 충실한 이들을 보호하고, 진리를 계시하거나 확인해 줍니다. 그러므로 성신을 곧 수호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태초부터 그리고 이후 여러 경륜의 시대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전하기 위해 천사들을 대리인으로 부르셨습니다. …… 하지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들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천사의 성역”,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29쪽)

주님은 각 사람을 보살피도록 어느 천사가 특별히 지명되어 있는지는 계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와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행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강화하고 위로하며 옳은 일을 행하도록 용기를 주는 천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교회는 동성애 행위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해심을 보이며 그들을 존중합니다.

동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우정에 대해 여러분이 아는 다음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십시오.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을 선택하여 서로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도록 강화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십시오. 참된 친구는 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

모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존중하십시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01], 12쪽)

교회에서는 사람의 성별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수행할 목적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명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행위는 그 목적에 반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에게 마음이 끌리지만 그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도덕성에 관한 교회의 표준은 개인이 매력을 느끼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과 그분의 교회는 그분의 법을 어기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부도덕한 행위를 규탄합니다. ■

이 주제에 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동성애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도움”, 리아호나, 2007년 10월호, 40쪽을 읽어본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약을 지키십시오

선교사로 봉사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 사업을 하는 열쇠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요구하고 발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각자 성약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이 분명 그 일부를 차지하기는 하나, 이 주제는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대합니다. 그리고 매우 개인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복음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약을 맺고 지키는 사람들만이 해의 왕국에서 누리는 궁극적인 축복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서 우리 목적의 핵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성약으로 왕국을 세우십시오

성약은 구속력 있는 영적 계약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특정한 방법, 즉 그분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생각하고 행하며 살겠다고 맺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그 보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충만한 영광을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흥미 있게 여기는 점은 성약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침례와 확인 시에 맺는 성약은 우리가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 들어서는 출발점입니다. 그러한 의식들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야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한 명씩 개개인에게 집행됩니다.

형제들이 신권을 받을 때도 성약을 맺습니다. 이 성약은 항상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약은 성전에서 맺어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장 엄숙한 약속을 하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더욱 온전히 펼쳐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봉되기 위해 성전에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즉, 거룩한 성전에서 맺는 궁극적인 성약으로 이끄는 이 세상 여정의 모든 길을 통해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가지 성약으로

그분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성전 성약의 역할

여러분이 엔다우먼트 의식에 앞서 받는 장엄한 의식들을 포함하여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가는 것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선교 사업에 헌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가면 그러한 성전 성약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한 그곳에서 받는 엔다우먼트와 선교사로서 성공하는 것 사이에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엔다우먼트(endowment)라는 말은 그 중요한 고리의 본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줍니다. 엔다우먼트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근이 같은 지참금(dowry)이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혼부부에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도록 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얼마간 시간을 들여 관대한 기부자들로부터 받는 기금인 대학교 영구 기금을 설립하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때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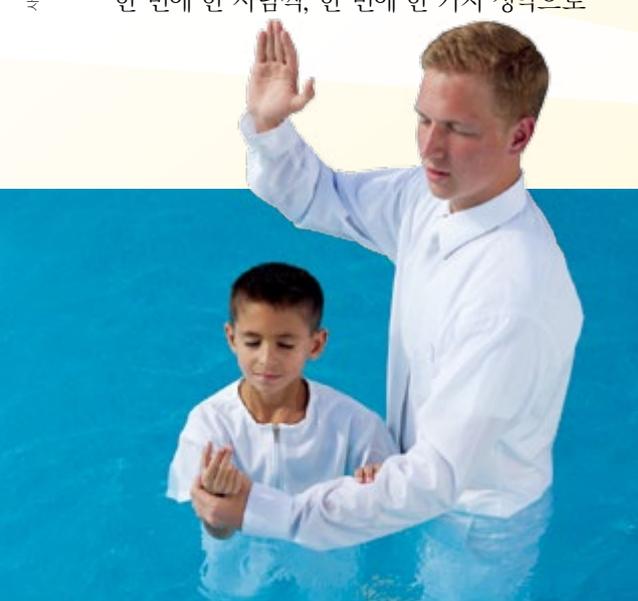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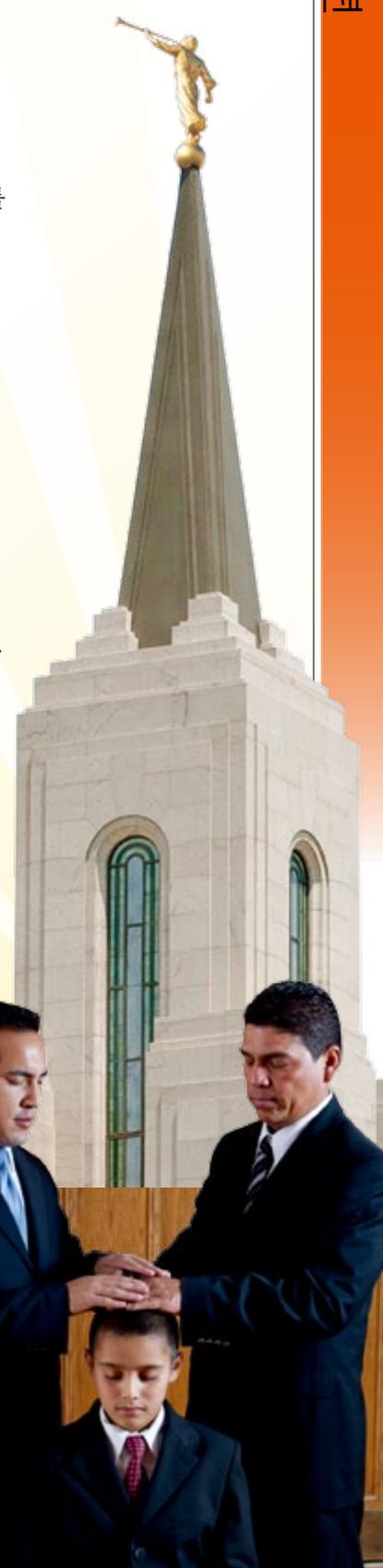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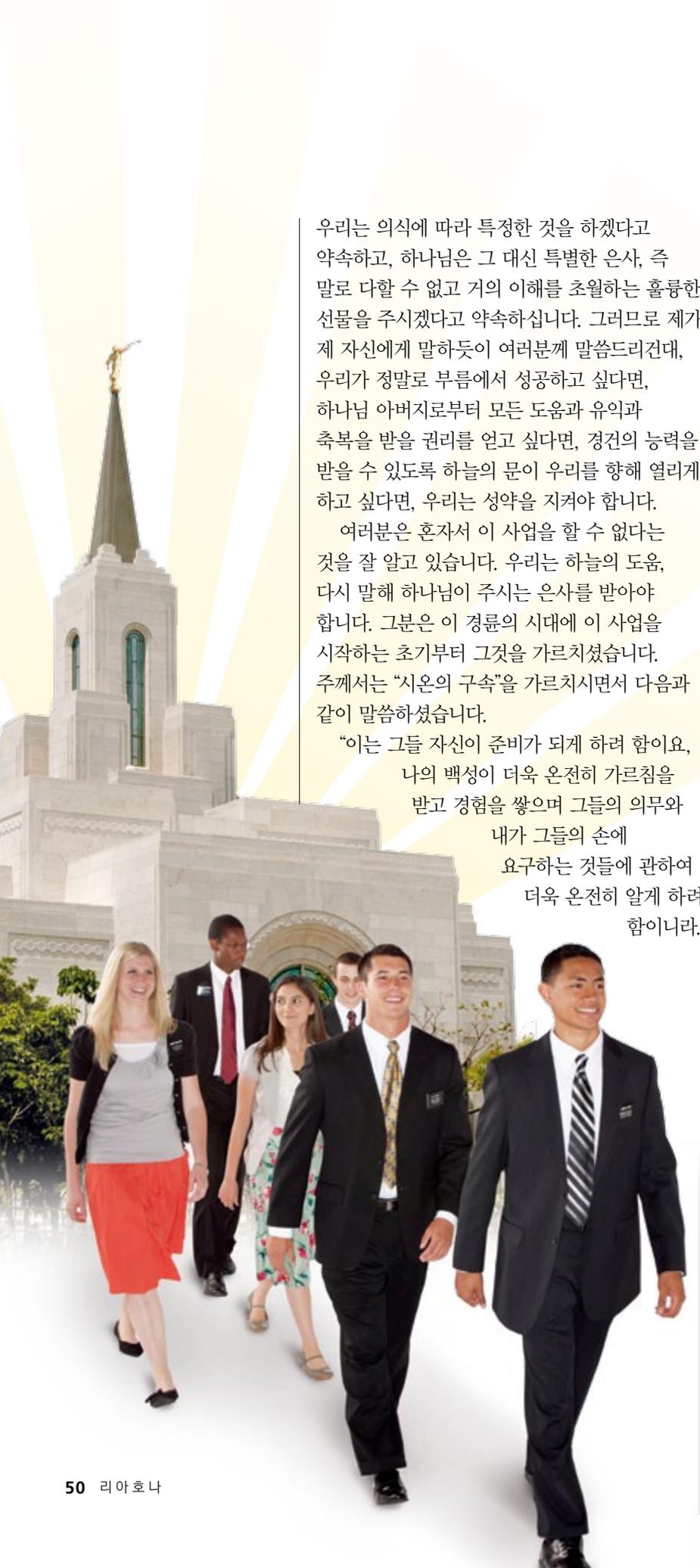


사진 출처: 매트 라이언의 크리스티나 세스



우리는 의식에 따라 특정한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은 그 대신 특별한 은사, 즉 말로 다할 수 없고 거의 이해를 초월하는 훌륭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 자신에게 말하듯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정말로 부름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도움과 유익과 축복을 받을 권리를 얻고 싶다면, 경건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우리를 향해 열리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성약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움,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은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부터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께서는 “시온의 구속”을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 자신이 준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나의 백성이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고 경험을 쌓으며 그들의 의무와 내가 그들의 손에 요구하는 것들에 관하여 더욱 온전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일은 나의 장로들이 높은 곳에서 오는 권능을 부여받기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충실하고 끊임없이 내 앞에서 계속하여 겸손하는 만큼, 나는 그들 위에 부어 줄 큰 엔다우먼트와 축복을 예비하여 두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05:10~12)

이 일은 매우 중대한 사업이어서 대적의 방해도 격심하므로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모든 능력을 받아 더 많이 노력하고 교회를 꾸준히 전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성전에서 맺는 성약입니다. 즉,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고 희생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전념하겠다는 약속이며,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큰 엔다우먼트”를 부여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약과 주님의 사업

우리가 개인적, 개별적으로 맺는 약속이 이 사업의 전체 규모와 위대함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이해하는 데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까? 구원의 계획에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장로와 자매의 성공은 한 번에 한 선교사씩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와드 또는 스테이크 전체로 성약을 맺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브라운 형제 또는 번스 형제, 존스 자매 또는 젠슨 자매로 성약을 맺습니다. 이 사업의 열쇠는 개별적으로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선교부에서 봉사할지는 모르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선교부에만 해당하는 특정한 약속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위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각 선교사가 성실하고, 개인적으로 성약을 준수할 때 그 힘으로 선교부 전체가 하나되어 산이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선물인 그러한 단합과 능력이 선교부 내 각 개인에게 부여될 때, 그 무엇도 “이 사업의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고결하게 독자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¹

사슬에 약한 고리가 없을 때, 갑주에 상처를 입기 쉬운 틈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승리를 거두는 것은 언제나 악과 죄에 대항해 벌이는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하나의 성약, 한 번에 한 개인, 한 번에 한 선교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하도록 스스로를 맬지니-그리하면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 너희가 받은 왕국에 영광이 더하여질 것이다."(교리와 성약 43:9~10)

이것은 성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 가서 행하는 바로서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주님과 서로에게 매게 되며 그런 후 그 힘으로 "모든 거룩함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능력과 영광이 우리와 우리가 하는 일에 주어집니다. 주께서는 성약을 지키는 것에 대해 다음 문맥에서 정확히 밝히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이 사업에 대한 비결은 우리의 성약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경건의 능력을 요구하고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입니다.

여러분은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성전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맺는 성약 하나하나를 모두 지키십시오. 그것들은 우리 각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맺는 매우 개인적이며, 매우 성스러운 서약입니다.

증거를 하겠다는 성약

이것을 여러분께 부탁하면서, 저도 그렇게 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저도 제 성약을 지킬 것입니다. 그 성약들 중 하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교리와 성약 107:23) 특별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성약을 지키고자 오늘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그 간증을 세상에 전하도록 부름 받고, 성임되고, 임명된 증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성역에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글자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영원히 지키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육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고통을 겪으셨으며,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경륜의 시대를 시작한 위대한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부름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고 자신이 맺은 성약에 대한 충실함을 나타내 보이는 궁극적인 상징으로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열쇠는 다른 열다섯 분을 통해 끊어지지 않는 사슬로 이어져 내려와 현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그것을 소유하며 선지자로서 성역을 베풀고 계십니다. 몬슨 회장은 오늘날 지상에서 감리하는 하나님의 대제사이십니다.

이 사업은 참됩니다. 이 선언 또한 참됩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온 어떤 다른 필멸의 남성이나 여성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제 삶을 인도하며, 제 간증에 의미를 더하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 세상의 구속주에 대한 특별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

1997년 4월 25일 선교사 위성 방송 말씀에서 발췌.

주

1. Joseph Smith, in *History of the Church*, 4:540.





청녀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본부 청녀 회장단

여러분에게 지도자가 되라고 외치는 것이 올해 상호 향상 모임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순수하고 정숙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앞장서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의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청녀로 진급했을 때 흰색

바탕에 금색 횃불 모양이 새겨진 목걸이를 받았습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청녀임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 목걸이를 걸고

진리와 의를 수호하며 일어나 여러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중한 딸로서 지닌 신성한 정체성에 따라 충실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모사이야서 18:9) 구주의 증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올해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다는 뜻으로 횃불 목걸이를 자랑스럽게 걸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물론경을 읽으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을 따르고, 웃음을 지어 보일 때 여러분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대로 생활한다면 기쁨으로 빛을 발하고 성신의 인도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으로서 저희는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구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시기 위해 함께하실 것이라는 점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또한 내가 …… 너희의 빛이 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내가 너희 앞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한즉 ……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니파이전서 17: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2012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



맨 위쪽: 일레인 에스 돌튼(가운데), 회장; 매리 엔 쿡(왼쪽), 제1보좌; 앤 엠 딘(오른쪽), 제2보좌. 위쪽: 데이비드 엘 벡(가운데), 회장; 래리 엠 김슨(왼쪽), 제1보좌, 에이드리언 오초아(오른쪽), 제2보좌.



훌륭한 본보기가 되십시오

본부 청남 회장단

영 화로운 아론 신권의 제사, 교사, 집사인 청남 여러분은 구주의 이름을 짊어진 거룩한 신권 소유자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신권 의무를 수행하고 “열국을 위한 기가 [되어]” “빛을 발[할]” 시기입니다.(교리와 성약 115:5)

지금은 “[여러분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마태복음 5:16) 할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모범이셨습니다. 그분을 알고, 따르며 그분처럼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영적인 힘을 전하는 훌륭한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기구를 매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교리와 성약 13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면 여러분은 매주 일요일에 구주를 대표하여 와드나 지부 회원들에게 거룩한 성찬을 집행할 때 특별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가족과 친구, 정원회 회원, 그 외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과 여러분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기쁜 성역자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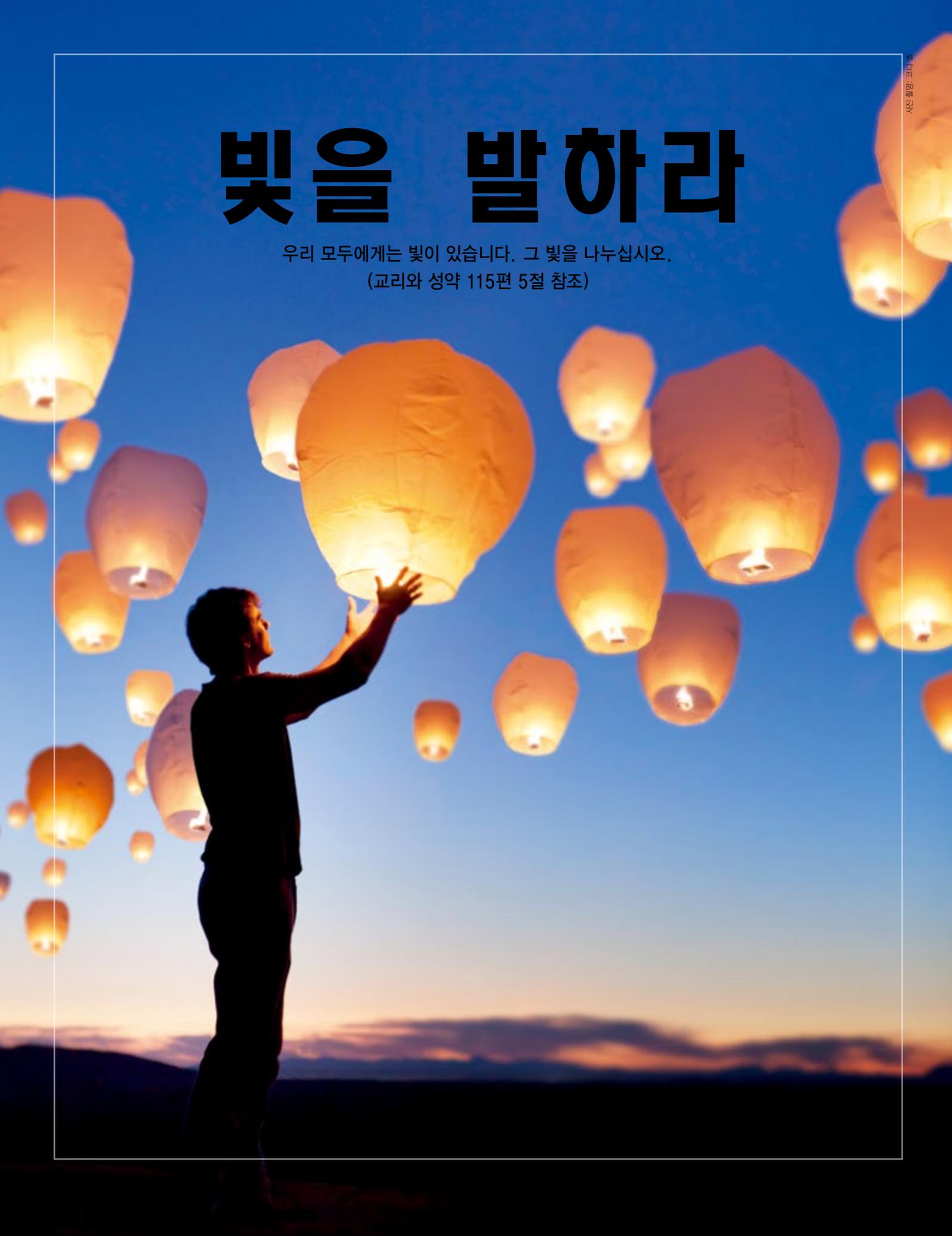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우정과 친절함으로 빛을 발하십시오. 교회 활동과 복음이 주는 가르침의 놀라운 축복을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용기를 내어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권유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 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의 빛은 “열국의 기”가 될 것입니다. ■



빛을 밭하라

우리 모두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나누십시오.
(교리와 성약 115편 5절 참조)



교리와 성약 115편 5절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1838년에 주신 이 계시에서 시온을 세우는 것과 더불어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에 불릴 그분의 교회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받은 것이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계명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됩니다.

있겠습니까? 제시된 방법을 살펴보고 여러분 자신만의 방법을 일지에 적어 보십시오.

- 친절하고 관대하며 겸손해진다.
- 교회 표준을 지지하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
- 웃음을 띠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기쁨을 보여준다.
- 친구들과 복음을 나눈다.
-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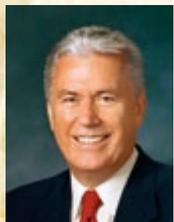
등대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시온에 오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37쪽.

기

기는 보통 깃대 끝에 매다는 깃발을 말하며, 집합하는 장소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교리와 성약 45편 9절을 참조하십시오.

“기를 든 사람들은 훌륭한 대의의 선두에 서서 전진합니다. 그들은 선하고 고귀한 것을 대표합니다. 때때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은 여러분 각자를 위해 위대한 사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 그분은 여러분을 신뢰하시며, 경이롭지만 위협이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밝게 빛을 발하라고 요구하시며 또한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President Dieter F. Uchtdorf, Second Counselor in the First Presidency, “Your Right to Choose the Right,” *New Era*, Aug. 200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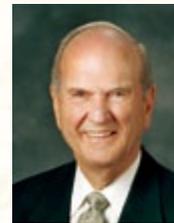
이같이, 온 세계 그리스도도 교회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5 진실로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 6 또 ‘시온의 땅에 크리고 그 스대이크들에 집합하는 것’은 진노가



열국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이 ‘나라들 가운데서 …… 나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스테이크와 단위 조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 주께서는 우리가 시온의 안전과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의의



정체성과 목적, 단합을 나타내기 위해 깃발이나 다른 상징물을 내걸기도 합니다. ……

주님의 기를 든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직한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깃발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를 든 사람으로서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을 짊어집니다. 성약에 따라 그분의 대의에 참여합니다.”

Elder Russell M. Nelson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Standards of the Lord’s Standard Bearers,” *Ensign*, Aug. 1991, 7.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선정된 성구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 학습을 시작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계획되었습니다.

네 빛

여러분의 빛을 어떻게 발할 수

하나님이 응답하신 두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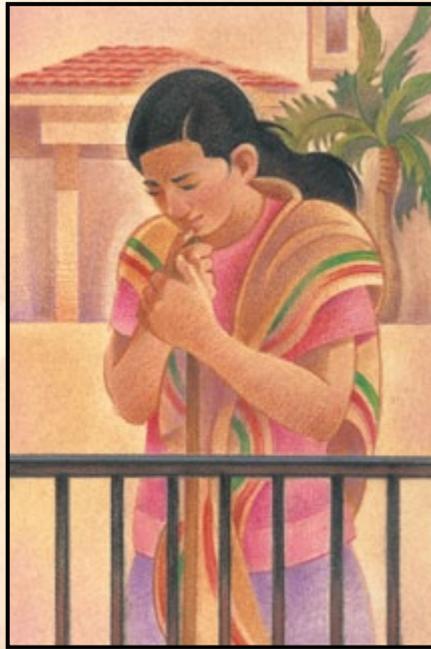
카를로스 이반 가르멘디아 파체코

멕 시코 두랑고 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선교부 회장은 “희생하는 한 주”를 보내라는 목표를 주신 적이 있다. 그 주 동안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평소보다 더 큰 노력을 쏟도록 권고하신 것이다. 동반자와 나는 회장의 권고대로 희생한다면 주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며 가르칠 사람을 많이 찾게 되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희생의 주 동안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가르칠 가족을 전혀 찾지 못해서 실망스러웠다.

한 주가 지난 후, 어느 아침에 동반자와 나는 우리 지역 지도를 들여다 보았다. 우리가 맡은 지역은 매우 넓었는데 그 중 가장 먼 곳으로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어느 길 혹은 어느 집으로 가야 할지를 여쭙었다. 기도를 마친 후, 주변을 둘러보며 길 전체를 살폈다. 근처에는 울타리가 하나 보였는데, 우리는 그 너머를 들여다 보았다. 그곳에는 빗자루를 쥐고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동반자가 “안녕하세요!” 하고 외치자 그 소리를 들은 여성은 아무것도 못 들은 듯이 몸을 일으켜 계속 청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이며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 자매님은 우리를 안으로 들였고, 우리는 무척 영적인 토론을 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와 조셉이 진리를 찾고자 기도하려고 숲으로 들어간 일,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러자 자매님은 도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건 진실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걸 알아요. 두

분이 제게 말을 건넸을 때, 저는 주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줄 누군가를 보내 달라고 기도드리는 중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여러분이 곧바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영을 느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녀에게 보내셨으며 우리 역시 바로 그때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는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간증했다. 루피나 자매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를 받았고, 그 후 몇 주에 걸쳐 루피나 자매님의 자녀들과 손자녀들, 심지어 이웃들까지 침례를 받아 그 지역에서만 총 20명이 개종했다. 주님은 우리를 루피나 자매님에게 인도하셨고 자매님은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축복을 간구할 때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신 후에 그 축복을 허락하신다. 동반자와 내가 주님 손에 들린 그분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간구한다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

충실하십시오

제럴드 코세 장로
철십인 정원회



사진 출처: 데이비드 스토키

20 대 시절, 저는 프랑스의 한 저명한 비즈니스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매우 어려운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2년 간 매일 긴 시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빠짐없이 교회와 종교 교육원에 나갔고 제가 맡은 교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면접이었습니다. 저는 한 학교에서 면접을 보았고, 그들이 제가 교회 회원임을 알았을 때 일은 들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학교에 시험을 친 다음, 면접을 보던 중에 면접관은 공부 시간 외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게 불리한 질문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입니다.”라고 말한 다음, 15분에 걸쳐 제가 교회에서 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학교 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어서 기쁩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몰몬이었지요. 그는 훌륭하고 매우 친절했습니다. 나는 몰몬이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해에 그 학교에 합격한 첫 번째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항상 우리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

돌, 화살, 그리고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 그를 맞이지 못하더라.”(히라맨서 16:2)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츠
교과 과정부
실화에 근거

학 교에서 돌아오는 길이 특별히 재미난 건 아니다. 수학 숙제를 고민하기도 하고, 체육 시간에 했던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별 생각없이 걷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다. 벌써부터 마음속으로는 긴장이 되었다. 가끔 함께 노는 조쉬와 마커스 형이 앞에서 눈을 멍치며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쉬가 웃으며 소리쳤다. “야, 데이비드. 이리 와 봐! 보여줄 게 있어.” 마커스도 웃음을 터뜨렸다.

조쉬와 마커스 둘 다 나보다 한 살이 더 많은 형들이라 힘주어 세계 던질 수 있었다. 곧 내 쪽으로 눈덩이를 던질 기세였다. 보통 조쉬와 마커스 둘다 나에게 친절했지만, 오늘은 눈을 멍치면서 얼음조각을 넣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공격에서 벗어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형들을 피해서 길 건너쪽으로 도망칠까? 아니야, 나를 놀리고 욕을 할 수도 있어.

전속력으로 달려갈까? 아니지, 형들은 나보다 빨라서 곧바로 잡히고 말거야.

나도 눈멍치로 공격해 볼까? 말도 안 되지, 나는 혼자고 저쪽은 두 명이잖아. 그리고 형들은 언덕 위쪽에 있으니깐 더 유리하고 나는 몸을 숨길 곳도 없어.

나는 그냥 가장 당연한 행동을 하기로 했다. 나에게 날아올 눈멍치를 주시하면서 아무 일 없는 듯 형들 곁을 지나가는 것 말이다.

언덕이 가까워오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성벽 위에 서서 복음을

눈뭉치

전한 레이맨인 사무엘이 떠올랐다. 사람들은 사무엘이 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돌을 던지고 화살을 쏘았다.

하지만 나는 주께서 돌과 화살로부터 사무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은 내가 눈뭉치에 맞지 않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눈뭉치에 맞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나는 그저 사무엘처럼 용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언덕에 다다르자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 생각대로 눈뭉치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뭉치는 거의 머리를 스치듯 썩 하고 지나가며 바람이 느껴지기도 했다. 뭉치는 팔 옆으로 지나갔고 뭉치는 발 바로 앞에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한번도 맞지 않았다. 단 한번도!

형들은 유유히 사라지는 나에게 계속 눈뭉치를 던져됐지만 나는 안전했다. 형들 시야에서 벗어나 집으로 오는 동안 즐거운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더할 수 없이 행복했다. 나는 레이맨인 사무엘처럼 보호를 받았다. 기도를 하고 주님을 믿는 신앙을 발휘했기에 나는 축복을 받았다. ■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행할 때 기도가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믿음으로 구하고”,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6쪽.

몰몬경의 양식을 취하며

몰몬경 시대에 살던 많은 어린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매주 몰몬경을 읽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할 수”(니파이후서 31:20) 있습니다.

어른의 도움을 받아 철심을 들어올려서 이 색칠 종이를 떼어내세요. 매주 몰몬경을 읽을 때마다 그 주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는 모든 칸을 색칠하세요. 매주 여러분이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는 62쪽에 나와 있습니다. 몰몬경은 혼자서 읽거나 가족과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상화: 스킵트 그리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물몬경의 양식을 취해봅시다'
(60~61쪽 참조)

주	읽기	주	읽기
1	물몬경 소개	29	엘마서 20:1~28
2	니파이전서 1:1~3, 18~20; 2:2~4; 3:2~7; 4:1~18	30	엘마서 23:6~7, 16~18; 24:1~7, 16~27; 27:2~5, 14, 27~29
3	니파이전서 8:2, 5~33	31	엘마서 30:6~9, 12~14, 31~32, 35~39, 43~45, 49~50, 55~59
4	니파이전서 16:9~10, 16~19, 23, 26, 28~32; 엘마서 37:38~46	32	엘마서 31:1, 5~7, 12~21, 37~38; 32:1, 5~6
5	니파이전서 17:8~11, 16~19, 49~55; 18:1~4	33	엘마서 32:26~43
6	니파이후서 2:11~13, 22~27; 4:15~16; 31:5~8, 17~21	34	엘마서 37:3, 6, 8~11, 14~15; 43:1~9, 16~17, 43~47; 44:16~20
7	니파이후서 32:3~9; 야곱서 7:1~20	35	엘마서 46:1~5, 11~16, 19~20; 48:7~13, 22~23; 49:25~26, 28
8	이노스서 1:1~13	36	엘마서 50:25~36; 51:5~6, 11, 13~16, 20~22
9	모사이야서 1:9~10, 18; 2:1~2, 5~8, 16~19; 3:17, 19; 4:9~10; 5:15	37	엘마서 53:10~21; 56:2~11, 43~48, 55~56
10	모사이야서 11:1~2, 20, 27~29; 12:1, 9, 14, 17~19, 35~36; 13:15~24	38	힐라맨서 2:2~11; 5:4~13
11	모사이야서 17:1~12, 20	39	힐라맨서 5:20~50
12	모사이야서 18:1~17	40	힐라맨서 6:18~23; 7:6~13, 26~29; 8:1, 4, 10, 25~28
13	모사이야서 21:1~15, 23~24	41	힐라맨서 9:1~24
14	모사이야서 21:29~35; 22장	42	힐라맨서 9:25~39; 10:1~6
15	모사이야서 23:1~7, 19~26, 36~39	43	힐라맨서 13:1~7; 14:2~8; 16:1~3; 제3니파이 1:4~9
16	모사이야서 24:8~25; 25:1, 14~19	44	제3니파이 1:10~15, 21~23; 2:1~2; 8:2~7, 23; 9:1~2, 18~22
17	모사이야서 27:6~24; 엘마서 36:11~12, 16~24	45	제3니파이 11:1~17, 23~26
18	모사이야서 27:32~37; 28:1~9	46	제3니파이 17:1~24
19	엘마서 1:2~15; 2:1~9	47	제3니파이 18:1~9, 19~21, 24, 35~39
20	엘마서 2:10~18, 29~31; 5:1, 19, 26~27, 33	48	제3니파이 19:11~26; 20:1; 27:1~8
21	엘마서 6:7~8; 7:9~12; 8:1~22	49	제3니파이 28:1~9; 제4니파이 1:1, 15, 23~26; 물몬서 1:1, 11~17
22	엘마서 8:23~32; 9:1~8, 14~15	50	물몬서 2:1~2, 9, 23~24, 26~27; 3:2~3, 16~22
23	엘마서 10:27~32; 11:21~46	51	이더서 1:1, 33; 2:5, 16~25; 3:1, 4~14
24	엘마서 12:1~7; 14:1~17	52	모로나이서 10:3~23
25	엘마서 14:18~29; 15:1~13		
26	엘마서 17:1~3, 12~13, 17~39		
27	엘마서 18:1~4, 8~35		
28	엘마서 18:40~43; 19:1~2, 8~15, 18~19, 22~33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이
주제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믿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심하면 삶에 생기는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만들어 낼 일들을 하는 데 자신의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목표가 의로운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가치 있고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소망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선택의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아 빠는 “생일 축하한다, 줄리아나!” 하고 말씀하시며 반짝이는 포장지에 리본이 묶인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줄리아나는 활짝 웃었습니다. 아빠에게 선물을 받아 신이 난 줄리아나는 선물을 어서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선물을 받으면 줄리아나처럼 신이 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택의지라 불리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택의지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사탄은 아무도 선택할 수 없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지구에 보내 마음대로 지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셨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훌륭한 선택을 하고 그분들께 돌아가 다시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올해 초등회에서는 옳은 일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배울 것입니다. ■



노래와 성구

- “하나님의 자녀로서”, 2012년 함께 나누는 시간 개요, 28쪽
- 니파이후서 2:27



바로 여러분

하루 동안 어떤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 보는 밤을 보내 보세요. 여러분이 한 훌륭한 선택 한 가지를 골라 그림으로 그리거나 시를 짓거나 노래로 만들어 보세요.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다이앤 엘 맹검

구약전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라 불리셨습니다. 구약전서에는 여호와를 따르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전서는 지상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야렛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노스는 기도했을 때 마음속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몰몬경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던 백성에 대해 가르칩니다.

몰몬경에 실린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인 구약 시대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선지자 리하이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 신세계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었는지를 알려 줍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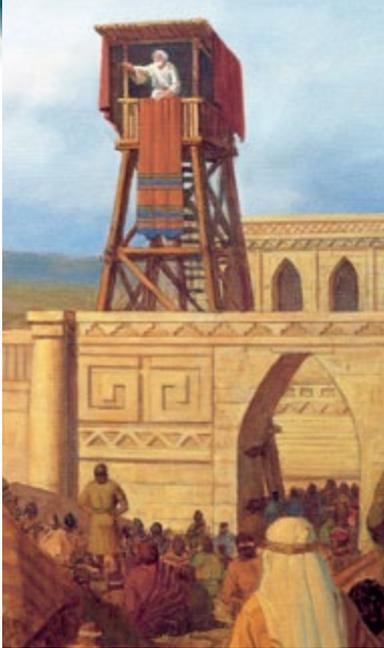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신대륙을 방문하셔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침례와 성찬,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이사도를 부르시고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신약전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리하이는 꿈 속에서 시현을 보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베냐민 왕은 백성에게 예수님의 속죄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모로나이는 예수님이 신세계를 방문하시고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살았던 몰몬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모로나이는 죽기 전에

몰몬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앙으로 기도할 때 그 책이 참됨을 알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로나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모로나이서 10:32)고 권유했습니다.

지금 어린이 여러분도 기도를 하면 몰몬경이 참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라는 간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태평양을 가로질러 맺어진 친구

제인 헨슨 라세터

브 리검 영 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몇 명은 통가로 갈 준비를 하면서 유타와 통가 어린이들이 친구가 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타 주 프로보 오크힐스 제9와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부탁하여 통가 어린이들에게 보낼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통가에 도착한 간호학과 학생들은 네이아푸 제3와드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유타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과 사진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통가 어린이들은 유타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알게 되어 매우 신이 났습니다.

통가 어린이들은 유타 어린이들에게 전해 줄 그림을 그렸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자기 자신과 통가 생활에 대해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쓰는 어린이들도 있었고 통가어로

적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회장님은 통가어로 쓰인 글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어린이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소년은 “나는 럭비를 해. 통가는 정말로 더운 곳이야.”라고 적었습니다. 어떤 소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림이 정말 마음에 들어. 그리고 너는 정말 예뻐. 나도 너처럼 노래부르는 것을 좋아해.” 초등학교에 대해 적으면서 사랑을 표현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오늘 공과는 선지자에 관한 것이었어. 사랑해!” ■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로즈메리 엠 위크
본부 초등학교 회장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느니라.”(앨마서 58:10)

저의 한 아들은 열한 살 때
아침에 일어나며 두통으로
몹시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 가기 싫어
폐병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살펴보니 열이 무척 높았습니다. 저희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기 위해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아이는
척수막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수막염은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자 아이는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복도로 걸어나가면서
저는 두려움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낮선 여성 분이

저를 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이를 도와 주시고 낮게 해
주시도록 소리 내어 기도드렸습니다.
큰 평안을 마음속에서 느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들은 수술을 받았고 회복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현재 그 아이는
건강하며, 결혼해서 귀여운 두 딸을
두었습니다. 그 때 경험은 저에게 기도의
힘을 확실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는 “어린이의
기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늘
아버지, 정말인가요? 어린이 기도 듣고
응답하나요?”(어린이 노래책, 6쪽)

대답은 분명합니다. 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계시는
걸까 하고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계시나요? 지상에 오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아버지와 다시 살기 위해
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



알맞은 옷

사라 차우
실화에 근거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디모데전서 4:12)

1. 새 옷을 사기 위해 엄마는 안나를 가게로 데려가셨습니다.



2. 좋아, 그렇다면 꽃이 달린 노란 옷이나 문방울무늬가 있는 빨간 옷은 어때?



3. 선교사처럼 보이는 이런 옷들이 좋아요.

좋아. 네게 맞는 치수가 있는지 찾아 보자.



4. 안나는 와드에 있는 두 자매 선교사가 무척 좋았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교회에 가면 악수해 주었고, 거리에서 손을 흔들면 웃어 주었으며, 식사 초대로 집을 방문했을 때는 안나의 가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5. 일요일이 되자, 안나는 새로 산 옷을 선교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들을 보자마자 안나는 한 바퀴 빙글 돌아 보였습니다.



6. 정말 선교사 같아 보여요.

그리고 걸모습뿐만 아니라 안나는 사실 진짜 선교사랍니다!



7. 엄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부탁한 대로 한 주 내내 기도했는지요? 자 보세요! 오늘 구도자와 함께 교회에 왔어요. 모두 안나가 기도해 준 덕분이예요.

고마워요, 안나 자매님.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히카리 로프터스,
힐러리 왓킨스 레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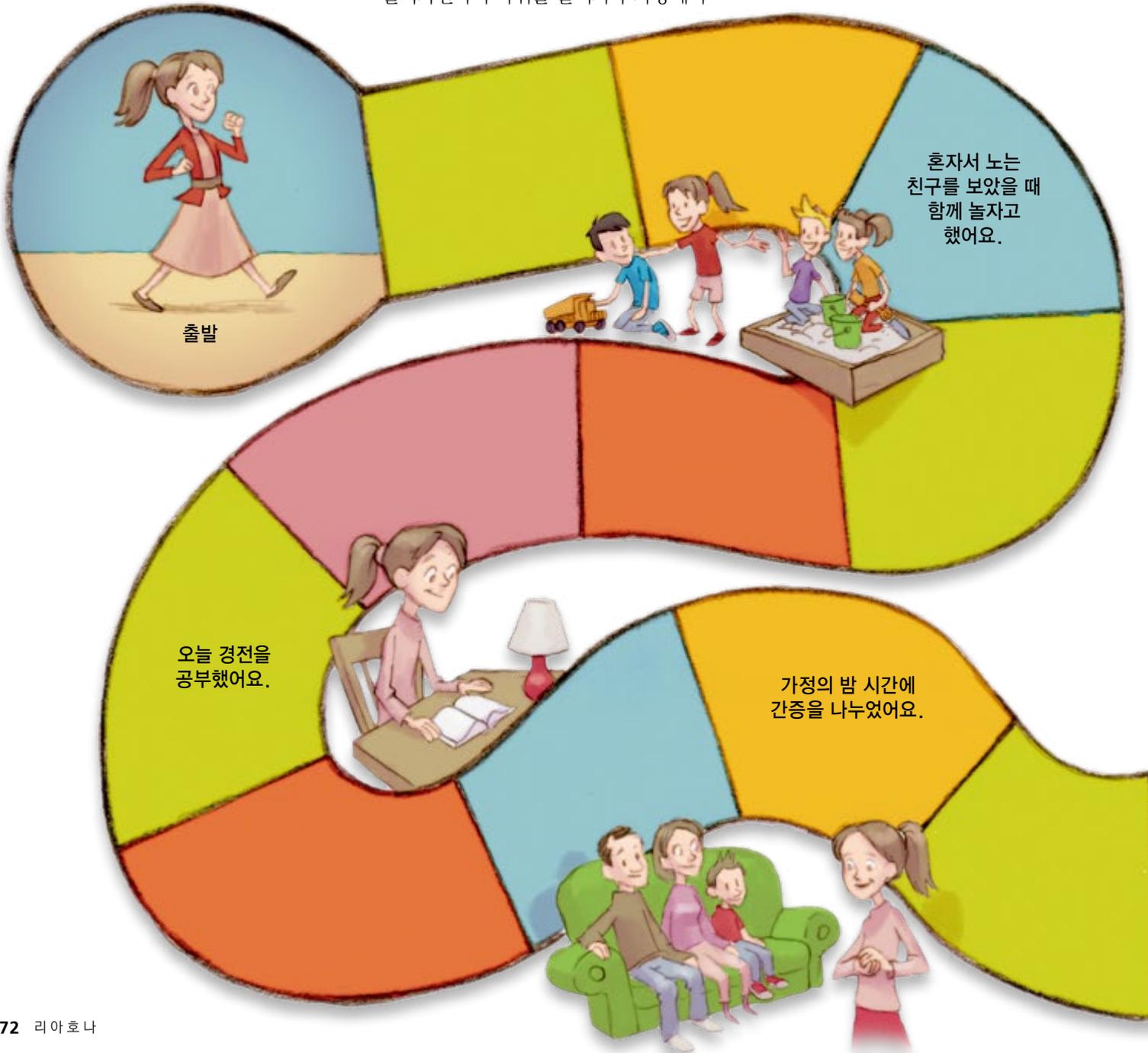
안 나는 선교사들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안나가 지금부터 선교사처럼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음에 나온 대로 해 보세요.

준비물: 주사위를 준비하거나 또는

1부터 6까지 적은 종잇조각 여섯 개를 작은 종이 가방에 넣어주세요. 사람 수에 맞게 동전, 마른 콩, 또는 다른 작은 물건도 준비하세요.

놀이 방법: 각자 말로 사용할 작은 물건을 하나씩 고르세요. 차례로 돌아가면서 주사위를 굴리거나 가방에서

숫자 하나를 꺼내 그 수만큼 말을 이동시키세요. 말이 선교사들이 할만한 일이 설명되어 있는 칸에 멈추면, 앞으로 한 칸을 더 가세요. 선교사들이 기다리는 결승선을 통과할 때까지 돌아가면서 계속하세요!



출발

혼자서 노는 친구를 보았을 때 함께 놀자고 했어요.

오늘 경전을 공부했어요.

가정의 밤 시간에 간증을 나누었어요.

부모를 위한 제언

자녀에게 단정한 옷차림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 보이는지를 가르친다. 자녀에게 선교사들이 단정한 옷차림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자녀에게 선교 사업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눌 수 있다. 개종하게 된 이야기, 또는 선교 사업에 참여하면서 겪은 일들, 선교 사업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들려 주어도 좋다.

경건한 태도로 교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엄마를 도와 빨래를 개었어요.



잊지 않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 주어서 고마워요!



결승점

성찬식 시간 동안 구주를 생각했어요.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기사를 보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시키는 청년 성인 센터

스테파니 진 존슨

교회 잡지

교회의 청년 성인 센터는 자라나는 세대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할 역할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현재와 미래의 교회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종교교육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로 유럽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년 성인 센터는 종교 수업은 물론 청년 성인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학교 과제를 하며 탁구를 치고 복음을 나누는 등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청년 성인

2003년 말에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독일의 베를린, 함부르크 및 라이프치히 등 네 곳에 청년 성인 센터를 세운 것이 청년 성인 센터의 시초가 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2004년에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에게서 유럽의 중앙 지역을 감리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면서 청년 성인 센터를 육성하도록 장려하였다.

현재 유럽 세미나라 및 종교 교육원의 지역 부책임자인 에릭 프소타는 오늘날 유럽의 신권 지도자들 중 대부분이 그 당시에 30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고 전한다.

프소타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페리 장로님이 받으신 영적인 느낌, 즉 “앞으로 유럽 교회의 성장은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달려있다는 영감은 유럽 각계각층의 청년 성인과 신권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페리 장로님이 받은 영감은 오늘날의 청년 성인들에게도 해당되는데 그 이유는 그 영감 덕분에 청년 성인들이 교회의 성장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에 설립된 청년 성인 센터의 수는 140개가 넘으며 추가로 30개의 센터가 설립 중에 있다. 모든 센터에서는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자라나는 세대를 준비시키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왕국을 세우고 우정을 쌓는 법을 배우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청년 성인 센터는 수많은 청년 성인 센터 중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이곳에서 청년 성인들은 왕국을 건설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 출신의 마틸다 길로메를 들 수 있다. 길로메 자매의 친구는 그녀에게 복음에 대해 더 알아보라고 권유했고, 선교사들은 2009년에 파리의 청년 성인 센터에서 그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길로메 자매는 2010년에 침례를 받았고, 그로부터 일년이 지난 후 노르웨이로 이사하였다. 그 곳에 있던 청년 성인 센터는 그녀가 간증을 키우는데 지속적인 도움을 주었다.

길로메 자매는 “센터는 또 하나의 집 같았어요. 기숙사에서보다 더 따뜻한 환대를 그곳에서 받았지요. 센터에 계시는 부부 선교사는 위로와 조언을 주시는, 부모나 다름없는 훌륭한 분들이셨어요. 파리와 오슬로에서는 부부 선교사를 찾아가 복음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집에서는 가족 중 저 혼자만이 회원이었기에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라고 말한다.

2009년에 침례 받은 샘 배스넷도 가족 중 유일한 회원이다. 오슬로 센터에서 선교 사업을 했던 경험은 그가 네팔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과 복음을 나누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슬로에서 이미 선교사들이 신권과 몰몬경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도와 준 적이 있는 배스넷 형제는 친척들에게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해 주었다.

“제 가족은 제가 느꼈던 것을 느껴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제 모습과 현재의 제 모습 사이에서 차이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었고 부정적이었어요. 침례를 받고 센터에 들르곤 했고 모든 일을 전보다 더



**청년 성인 센터는
자라나는 세대가
복음 메시지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배스넷 형제는 말했다.

배스넷 형제 외에도 센터에서 영으로 고양되고 동기 부여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스코트랜드 출신의 벤자민 커는 2년간 여름 기간 동안 오슬로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 곳이 바로 그 센터였음을 알게 되었다.

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센터는 험난한 세상에서 저를 지켜주는 피난처입니다. 센터에 있으면 저는 평안과 안전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센터에 있으면서 특히 가정의 밤을 갖는다는 건 우리를 염려케 하는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면 큰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체험한 이런 일을 떠올리면 저는 복음의 단순한 원리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청년 성인과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다

청년 성인 센터는 젊은이들이 복음 안에서 친구와 가족을 강화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다른 도움도 주고 있다. 바로 지도자를 강화시키는 일이다.

청년 독신 성인들은 서로 돌아가며 센터의 지도자 평의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여러 가지 다른 활동과 공과를 계획한다.

우간다 출신이나 현재는 노르웨이 시민인 바바라 마토부는 이렇게 말한다. “이 같은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보이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교회의 조직에 대한 저의 간증이 더욱 커지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의 왕국은 혼자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단결하여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청년 성인들이 미래의 교회 부름에 봉사할 수 있는 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능력 있는 배우자와 부모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경험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청년 성인들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하게 된다.

“청년 독신 성인 평의회에서 배운 지도력의 원리는 부모가 될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도움이 될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인내와 대화, 방향 제시 및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리고 영의 속삭임을 따르는 것과 같은 것들이죠.”라고 노르웨이 트론헤임의 센터에서 아내와 함께 봉사한 적이 있는 제럴드 소렌슨이 말했다.

청년 성인 센터는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계속해서 맞서 싸우며 청년 성인이 미래의 교회 지도자로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청년 성인들이 센터를 찾는 목적은 복음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종교가 다른 친구들과 복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데에 있습니다.”라고 프스타 형제는 말한다. “센터는 새롭고도 잘 준비된 세대가 열정과 영원한 관점으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봉사의 날 활동에 참여한 브라질과 영국 회원들

제 일회장단은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모든 회원들에게 올해 안에 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었다. 그 이후로 성도들은 이 권고에 호응하였다. 적어도 두 국가, 영국과 브라질에서는 단위 조직별로 회원들이 함께 하여 자신의 국가에서 하나가 되어 봉사의 날 활동에 참여했다.

영국

2011년 9월 5일, 월요일에 영국 전역의 11개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칠십인 에리취 더블유 코우피쉬케 지역 회장과 함께 토트넘 마쉬에서 도움의 손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임을 가졌다.

그 행사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 75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2011년도 런던 정화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했다. 회원들은 다섯 시간 동안 런던 시장실과 협동하여 리 벨리 공원에서 잡초를 뽑고, 화단을 만들고 나무를 정리하고, 옷자란 식물을 자르며, 쓰레기를 정리했다.

같은 날 런던의 다른 지역에 모여 있던 회원들은 헤븐 어린이 호스피스 보호소와 리차드 어린이 호스피스 보호소에서 도움의 손길 활동에 참여했다.

리차드 보호소에서는 스텐포드

와드 회원 18명이 사무실에 페인트를 칠하고, 잡초를 뽑으며, 식물을 잘라내고, 마당을 쓸고, 도구들을 정비했다. 이 활동으로 보호 시설과 교회가 처음으로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리차드 보호소의 봉사 활동 책임자인 샬롯 일레라는 말했다.

“봉사자들이 열심히 즐겁게 일을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로 청소 같은 아주 간단한 일도 정말 훌륭하게 해냈습니다.”라고 책임자는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영국과 북 아일랜드의 교회 회원들은 전국적으로 수십 여 개의 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해왔다.

2011년 9월 5일, 영국에서는 11개 이상의 스테이크가 함께 모여 런던과 그 주변에 있는 3개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펼쳤다.

런던, 필립스의 회원들이 반야 나잔을 깨며



브라질

2011년 7월 30일에 물론 도움의 손길 12주년을 기념하여 브라질 전역에서 봉사 활동에 참여한 수백 명의 회원들은 노란 조끼를 입고는 봉사 현장을 노랑게 물들였다. 도움의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에 봉사하며 재난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을 두고 있다.

물론 도움의 손길(*Mãos que Ajudam*)은 사실 브라질에서 시작된 것으로 교회가 인도주의적 노력을 해나가며 친구와 이웃을 사귄 수 있는 방편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이제는 해마다 열리는 중요 행사가 되었다.

올해의 봉사의 날은 노래와 웃음, 박수가 넘친 날이 되었는데 남미에서 면적이 제일 넓고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120,000명의 남녀노소가 모여 거리와 학교를 청소하고 건물을 보수하며 공원을 정화하는 등 여러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교회 회원들은 지역 사회 주민들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봉사를 펼쳤다.

벨로리존테와 레시페, 바이아 지역에서는 텅기열 퇴치를 위해 6,000명이 넘는 자원 봉사자들이 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자원 봉사자들은 공립 학교와 주간 보호소를 청소했다. 포르토 알레그레 지역에서는 1,500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학교를 청소하고 그 중 일부는 마약 복용 금지에 대한 강의에 참여했다.

봉사의 날이 있기 두 달 전부터 50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은 기증받은 음식을 수거해서 7월 30일에 도움이 필요한 상호제 지역의 가족들에게 전달하였다.

블루메나우의 교회 회원들은 약 136 킬로그램에 달하는 음식을 *Casa de Apoio às Crianças Portadoras de Mielomeningocele e Neoplasia*(척추 파열과 종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를 돕는 보호소)에 기증하였다. 자원 봉사자들은 또한 그 단체에 음식 비축과 관련된 기본 원칙을 가르쳤다.

“배운 기술들을 활용하면 식료품 저장실에 음식을 비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음식 대부분이 습한 환경 때문에 상해버렸었거든요.”라고 사회 사업가 에이드리안 제이 베크스 루오프가 말했다. ■

편집자 주: 여러분의 봉사의 날에 경험한 일을 lds.org/service/welfare-75th-anniversary에 올려 함께 나누십시오.

바로잡습니다

2011년 10월호 *리아호나* 73쪽에 실린 사진 작가 설명을 “사진 촬영: 메건 톨먼”으로 변경합니다. ■

2012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가 발표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20 12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이다.

이 말씀은 1838년에 미국 미주리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의 일부로 당시 교회의 감리 역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상호 향상 모임 주제로서 12세에서 18세까지의 전 세계 교회 청소년들에게도 적용된다.

주제는 상호 향상 모임의 개회 모임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청소년이 하는 성찬식 모임 말씀의 주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야영 및 청소년 대회, 영적 모임과 같은 청소년 활동의 주요 주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특별 문화 활동과 기타 무도회, 음악 활동, 연극 활동의 주요 주제로 활용할 수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역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2012년 청소년의 힘 미디어: 일어나 빛을 발하라 DVD를 보여주며 이 주제를 소개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 DVD는 각 단위 조직으로 2012년 상반기에 발송될 것이다.

이 DVD는 정월회 모임이나 공과, 청소년 대회 및 한 해 동안 진행되는 다른 청소년 활동의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광둥어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추가 보조 자료는 *리아호나*와 *New Era* 혹은 LDS.org에서 2012년 초에 찾아볼 수 있다. ■

전 세계 집회소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다

교회는 전 세계 집회소 중 85 퍼센트에 해당하는 집회소에서 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무선 인터넷은 선택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집회소에서 교회의 취입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회 지도자들은 기록을 관리하고,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온라인 자료를 공과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교회가 동 아프리카 기근에 대해 원조를 보낸다

극심한 가뭄으로 긴급한 원조가 필요했던 동 아프리카의 천백오십만 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해 교회는 여러 단체들과 협력하여 식료품과 의약품,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고 잠시 머물 곳을 마련해 주며 기근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구호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회원들은 인도주의적 기금 헌금에 기부할 수 있다. ■

선교사 훈련원의 경험을 넓혀 주는 새로운 선교사를 위한 임지 훈련

선교사 훈련원을 마친 선교사들에게 바로 12주의 추가 훈련을 제공하는 계획이 2011년 8월에 시작되었다.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책임자인 리차드 히튼이 설명하기를 임지 훈련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받는 선교사 훈련의 연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선교사와 그들을 훈련하는 선교사 동반자들은 첫 12주라는 지도서를 통해 첫 12주 동안 가장 많이 참조해야할 자료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주님의 종으로서 ……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선교부 회장들은 세 가지 훈련 문서와 새로운 동반자 공부 비디오로 구성된 새로운 선교사 임지 훈련 자료를 즉시 활용하기 시작했다. ■

이 기사들 외에 다른 기사들을 더 읽고 싶다면 news.lds.org에 접속한다.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 성전은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전 중 135번째이며 중미 지역에서는 네 번째 성전이 된다.

산살바도르 성전이 헌납되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2011년 8월 21일, 일요일에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 성전을 헌납했다. 이 성전은 중미 지역에서는 교회의 네 번째 성전이며 전 세계에서는 135번째 성전이다.

약 16,000명이 8월 20일 토요일에 진행된 두 차례의 문화 축하 행사에 참석했으며, 그 행사에서는 노래와 춤으로 그 지역의 풍부한 문화 역사가 재조명되었다.

회원들에게 Create.LDS.org 에 오디오 파일을 기부해 줄 것을 요청하다

교회는 물론 채널 라디오와 기타 교회 자료 작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고품질의 음악과 기타 오디오 파일을 create.lds.org 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원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news.lds.org(키워드 “create.lds.org”를 이용하여 검색한다)에서 읽어볼 수 있으며, 파일은 create.lds.org에서 업로드할 수 있다.

2012년 함께 나누는 시간 자료가 온라인에서 제공되다

본부 초등회 회장단은 2012년 함께 나누는 시간의 주제로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를 발표했다. 초등회 회장단은 LDS.org 사이트의 **Serving in the Church**(교회에서 봉사하기) 메뉴에서 “Primary”로 가면 개요를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각 단위 조직에 10부의 개요를 7월에 발송했지만 온라인 접속이 가능해짐에 따라 7월에 우편으로 배부하던 일은 중단될 예정이며 대신 개요 3부가 연례 교과 과정표와 함께 각 단위 조직으로 자동 발송될 것이다. ■

강력한 도구

저는 항상 리아호나를 구독했었는데 저활동 시기에는 리아호나를 자주 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옷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몇 권의 과월호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훑어보는데 한 이야기가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수 년간 저활동으로 지내며 교회로 돌아갈 뜻이 전혀 없던 한 자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감을 받은 감독님이 그 자매에게 부름을 주자, 그녀는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재활동화시킨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수 년이 지난 지금 리아호나는 저의 가정에 큰 영향을 주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잡지에 실린 조언과 인도, 간증은 우리에게 매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에마 리마 사예스 브로에델, 브라질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이야기

저는 어린 아들을 둔 어머니이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들에게 리아호나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도 축복이 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 조셉 스미스, 경건, 기도, 그리고 그외 많은 것들에 대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계속 해 나갑시다!

실비아 루이스 데 누노스, 에콰도르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제출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일상에서 누리는 축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십시오”, 24쪽: 주 기도문(마태복음 6:9~13 참조)을 읽어 보고 가족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 본다. 그런 후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 언급한 기사의 첫 번째 부분을 요약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된다는 여러분의 간증을 덧붙일 수 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산 사람”, 32쪽: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은 “우리에게 만약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다.” 가족과 함께 기사를 다시 살펴 본다. 그런 다음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을 친절하게 대했던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어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더욱 친절해 질 수 있는지 질문해 본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42쪽: 쿡 장로가 젊은 선교사였을 때 경험한 내용을 나누고 기사의 나머지 부분을 요약할 수 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에 중점을 둘 수 있는지 질문한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으며 마무리할 수 있다.



“성약을 지키십시오”, 48쪽: 가족 중에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본문 전체를 읽을 수 있으며 홀런드 장로의 제안에 관한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중심은 우리의 성약을 지키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을 강조한다. 성약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어린 자녀들에게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본다.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69쪽: “어린이의 기도”(어린이 노래책, 6쪽)를 부를 수 있다. 워숨 자매의 기도에 관한 경험을 읽고 가족들에게 개인적인 기도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나누도록 부탁한다. 기도를 하여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기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으로 마무리한다. ■

재미있는 활동, 영원한 메시지

십대였던 나는 가정의 밤에 마지못해 참여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몇 차례의 어려웠던 가정의 밤을 하고 난 어느 월요일 저녁, 어머니는 식탁을 닦으시고는 우리 각자에게 작은 체리 파이를 주셨다. 아무리 찾아 보아도 포크가 없었다! 어머니는 파이 먹기 시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기구나 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거기서 이기면 가족들 모두가 진정한 1등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우리는 재빨리 파이를 먹었다. 그런데 곧 체리 파이가 식탁은 물론 우리 얼굴, 심지어는 머리카락에도 뒤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누가 이겼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다는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그 날 밤에는 완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장소가 있었다는 것과 나를 돌보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참 고마운 생각이 든다.

분명 그 날 밤 우리는 노래도 하고 공과도 들었다. 물론 어머니가 준비하고 치우는 시간도 꽤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때로부터 언제나 내게 필요했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준 그 활동에 정말 감사하다.

헤더 모클러 터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전문가에게 배우며

조지 시 로빈슨

사 람들은 내게 외과 의사 일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자주 묻는다. 수업을 듣고, 수술 장면을 한 번 지켜 보고 나면 가능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훈련 과정에 관한 이런 역설도 있다. “한 번 보고, 한 번 해 보고, 한 번 가르쳐 보라.” 하지만 이것은 모두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유능하고 인내심이 많은 여러 의사들에게서 지도를 받으며 전문 기술과 지식을 익혔다. 처음에는 어깨 너머로, 그 다음에는 바로 곁에서 그들을 지켜 보았다. 1년 동안 참관을 한 후에야 외과의와 '수술 보조'라 불리는 외과 보조의를 돕는 작은 임무를 맡았다.

그로부터 1년 후, 간단한 수술에서 외과의와 수술대에 마주 설 수 있는 수술 보조가 되었다. 1~2년 후에는 좀 더 복잡한 수술에서 수술 보조를 했다. 그 후에는 숙련된 외과의가 내 수술 보조로 함께하는 가운데 탈장 수술과 같은 가장 간단한 수술을 하기 시작했다.

의대를 졸업하고 7년이 지난 후, 그 훈련 마지막 해에 나는 외과의가 내 수술 보조로 함께 하는 가운데 복잡한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나는 훌륭한 스승은 보조자로서 수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배웠다. 그분들은 나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기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방법을 알려 줄 수 있었다.

훈련을 마치고 직접 수술을 집도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수술 보조로서 나를 지도해 주었던 이 놀랍고도 유능한 외과의들에게 어떠한 감사를



외과 수련의 시절, 내 곁에는 늘 나보다 더 숙련된 사람이 함께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와 같은 기회가 있다.

표한다 해도 충분치 않을 것이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의 스승들이 엄청나게 공들여 가르치고, 보여주고, 바로 잡아 준 기술들을 사용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그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복음 원리를 배우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배워나감에 또한 매우 인내심 많은 스승에게서 조금씩 배우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며 영감을 구하면 그분은 주로 성신과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 경전,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신다. 우리가 자신감을 얻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곁에는 인도자가 상징적으로 함께하신다. 우리가 가는 길을 다듬어 주시고, 필요할 때 바로 잡아 주시며, 질문에 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합당성을 증명해 보일 때 더욱더 우리를 신뢰하시면서 말이다.

어떤 외과 의사 준비생들은 독립적으로 치료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게 되기를 무척 고대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문가 없이 행동하려고 한다. 하지만 외과 의사로 수년간 일하며 깨달은 점은 삶과 영혼이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수술 보조가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복음 안에서 진보하는 일은 전세에서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의심할 바 없이 필멸의 삶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거치게 될 경험의 각 단계를 이미 밟으셨으며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분과 그분의 전문 지식에 의지하라고 권유하신다. ■



지역 소식

신년 특집 기사 ①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신년 메시지

바로 '지금'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토 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200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회원들에게 우리 길에 놓일 어려움과 변화, 실망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¹ 또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의 필멸의 삶은 우리가 가지는 단 한 번뿐인 유일한 기회입니다. 오래 살수록 우리는 이 삶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크게 실감합니다. 기회들은 왔다가 또 갑니다. 저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짧은 여정 동안 배워야 하는 가장 큰 교훈 중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미래를 계획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을 지나쳐 가게 하지 않기를 간청드립니다. [바로 ‘지금’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²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 장로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삶에는 굴곡이 있고 세상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낙담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힘든 시간 속에서 배우고, 더 강해지며, 더 현명해지고, 결과적으로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³

일본 북동 지역에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난 직후, 우리 지역 회장단은 일본 센다이 지역으로 가서 그곳의 신권 지도자와 회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참상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이 끔찍한 자연 재해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지진이 일어난 후 첫 번째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일본 지진 해일 피해 당시 현장을 방문해서 회원들을 위로하고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매일 회의를 계속했다.



성찬식이 있었는데, 감독님이 말씀하던 중에 강력한 여진이 일어나 모임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회원들이 생존에 따른 안도감과 신앙의 영을 동반한 가운데, 얼굴에 미소를 띄고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진 후 있었던 첫 번째 성찬식에 참석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왔던 한 충실한 미망인 자매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도로가 여전히 폐쇄되어 있었기에 교회까지 자전거로 두 시간 넘게 걸려서 왔습니다. 자매님은 두렵고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날에도 헬멧을 쓰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물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에도 자매님은 자전거 바구니에 자신의 유일한 구호 물품인 대용량 물통을 실어 오셨습니다. 이 물통은 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회원이나 그날 교회에서 만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매님을 주차장에서 맞이했을 때, 빛이 날 정도로 밝은 미소로 응답해 주셔서 그 자매님을 본 모든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매님은 자신의 집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말씀하면서도, 눈과 찬 비를 막을 수 있는 지붕이 남아 있음을 감사히 여기셨습니다.

주께서는 필멸의 삶에 놓인 길을 인도하여 그 방향을 알려 주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일이 쉬울 거라고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보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⁴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가지고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지금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도다. 그러할지라도,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왕국은 너희의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한 부도 너희 것이니라”⁵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역경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쁨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회원들의 모범에 저절로 겸손해지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그분들의 모범과 “인생의 여정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몬슨 회장님의 권고에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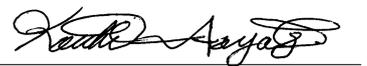
깊은 사랑과 감사를 전하며,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게리 이 스티븐슨



마이클 티 링우드



고이치 아오야기

주

1. Church News, 2011년 8월 13일 Viewpoint
2. 2008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토마스 에스 몬슨
3. 2008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조셉 비 워스런
4. 교리와 성약 6:36
5. 교리와 성약 78:17~18

지역 칠십인 신년 메시지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의 지역 칠십인들이 신년 메시지를 보내왔다. 세 명의 지역 칠십인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한국의 성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했다. 또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에 따라 성도들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들의 메시지를 소개한다.



배움의 기회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 부름에 따라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겸손한 모범들을 보면서 주님의 위대한 복음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모든 일에서

함께하셨던 주님의 인도와 축복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그러한 배움의 기회를 갖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고, 선교 사업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을 집합시키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성전을 건축하고 대리 의식을 행하여 죽은 자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올 한 해에도 제 작은 신앙을 행사하며 여러 충실한 성도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보다 많은 성도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청소년들이 보여준 놀라운 신앙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소년들은 주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보며 저는 우리 교회의 찬란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청년대회를 통해 청년 독신 성인들의 기적과 같은 변화를 목격하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 잘 준비해서 그 대회에 꼭 참석하기를 권유합니다.

저는 지난 스테이크 대회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조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보다 많은 내 이웃을 구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구조 사업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홀로 담대히 서서” 신앙을 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다해 기도합니다. ■

배덕수 장로



주님의 안전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사 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지면으로나마 새해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의로운 소망을 알고
계시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에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안전과 평화
있네 주 축복 주시리'라는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경전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는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된
이러한 축복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모사이야서
2:41)

주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모든
성약과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오희근 장로



교회의 경계를 넓히며

주 님의 교회의 참된 모습은
교리와 성약 82편 14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움이

더해지고 거룩함이 더해지고 경계가
넓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성약에 충실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며,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또한 와드와
지부에서 선교 사업과 성전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교회는 더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영적으로 발전했고,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이 EFY를 통해
담대한 주님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제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저는 2012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옷을 입고 충실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접견, 평의회, 훈련 및 교육, 방문
등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일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신앙과 사랑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또한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을 자주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자주 느끼기를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섬세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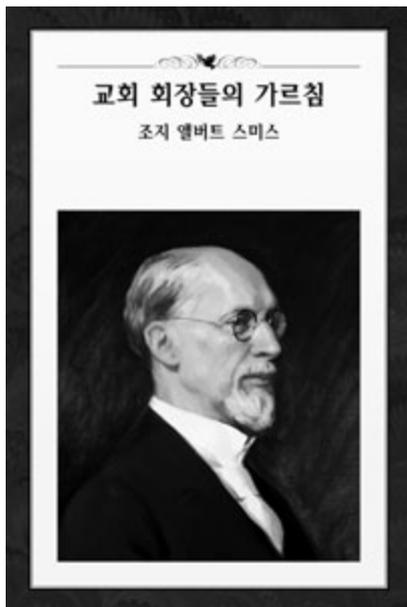
김창호 장로

2012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및 공과 교재 소개

2012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하여
네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5)

이 구절은 1838년에 미국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신 계시의 일부로 원래는
교회의 감리 역원들에게 주어졌으나
2012년 지금, 현대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지침이 되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후기 성도 청소년들은 이 같은
주제 아래 청소년 대회, 영적 모임과
같은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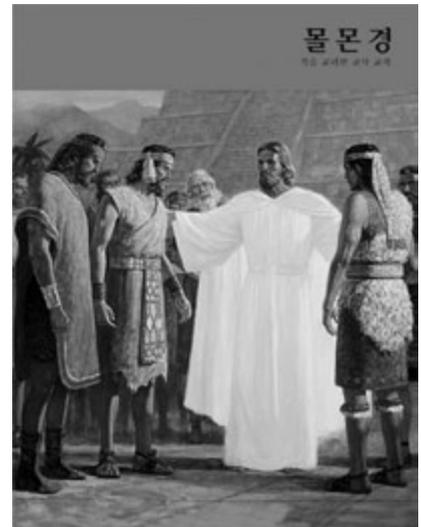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에서는

매달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를 공부하게 된다. 이 교재에는
교회의 제8대 회장으로 봉사한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가르침과
일화가 들어 있다. 반원들은 주님의
선지자가 남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그러한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또한 배우게 된다.



2012년 함께 나누는 시간 개요: 옳은 것을 선택하라

2012년 한 해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옳은 것을
선택하라’라는 주제 아래 매주 공과와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주제 성구는
여호수아 24장 15절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이다.



물몬경

2012년에 주일학교에서는 물몬경을
교재로 사용하게 된다. 교회의 종석인
물몬경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배우고
그 속에 들어 있는 원리를 찾아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반원들은 ‘반원
학습 지도서’를 통해 예습을 함으로써
공과 교사의 가르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외 교과 과정들

일요일 교과 과정 중 선택 과정에는
‘복음 교육’과 ‘결혼 및 가족 관계’,
그리고 ‘성전 및 가족 역사’와 ‘성전
준비’가 있다. 이 과정들은 감독단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 운영된다.
주일학교 시간을 비롯하여 참여자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언제라도 운영할 수 있다. ■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 뜨거운 찬송, 소리 없는 기도

그들의 찬송에는 소리가 없다. 기도를 할 때에도 눈을 뜨고 있다.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의 안식일 풍경이다.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두 개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음도 없고 박자도 없는 찬송이 교실을 가득 채운다. 기도를 할 때는 온 몸을 사용한다. 수화라고 해서 단지 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얼굴 표정으로, 몸 전체의 동작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기도를 '보는' 회원들의 얼굴에도 비슷한 표정이 스친다. 공과와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수화로 진행되고, 그래서 회원들은 교사와 연사의 말을 하나도 빼먹지 않기 위해 집중하고 또 집중한다.

소리가 없다고 해서 결코 조용한 것만은 아니다. 회원들은 공과를 하는 내내 활발하게 토론한다. 12월 둘째 주 안식일에 중앙 농아 지부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제목의

공과가 진행되었다. 교사는 이길용 지부 회장이었다. 이길용 회장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실제로도 말을 잘 하는 사람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역동적인 동작과 수화로 공과를 이끌어나갔다. 회원들의 질문도 중간중간 계속 이어졌다. 회원들은 자주 웃었다. 이길용 회장은 실과 끈의 차이에 대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다. 실은 한 가닥이지만 끈은 여러 개의 실이 모인 것이라고 말하며 회원들이 조금 더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 농아 지부에는 열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열 명이면 평균적인 수치이다. 중앙 농아 지부는 1980년 4월 6일에 설립되었다. 그 전에는 1977년에 윤영구 형제가 침례 받은 후 당시 8와드에서 농아반의 형태로 모임을 진행했다. 중앙 농아 지부는 그 후 발전을 거듭해 한때는 팔십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모두 이사를 가거나 교회와 멀어졌다. 중앙 농아 지부의 초대 지부 회장이자 청각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침례를 받은 윤영구 형제는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다.

“1977년에 침례를 받았는데 선교사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린 것이 그 계기였습니다. 가족 중 제일 먼저 제가 침례를 받았고, 그 후 아내와 자녀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중앙 농아 지부에서 봉사하면서 많은 회원들을 만났고 또 그만큼 떠나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 지부는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복음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들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영구 형제처럼 중앙 농아 지부에 참석하는 회원 대부분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 그들에게 복음이란



윤영구 형제와 말씀을 전하느라 바쁜 그의 손





좌측 사진부터: 공과를 하고 있는 이길용 지부 회장, 연사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중앙 농아 지부 회원들, 한 회원이 기도를 하고 있다.

삶의 전부이자 행복의 근원이다. 주위의 친구들이 조금 더 지원이 잘 되는 다른 교회로 옮겨갈 때도 주님의 참된 복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지켰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이길용 회장은 중앙 농아 지부를 위해 도움을 줄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화 통역 봉사자가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고,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 같은 바람은 중앙 농아 지부 회원 모두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이 배운 수화 속에는 '책임 전가'라는 단어가 없다. 다만 공과와 성찬식이 진행되는 내내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노력'이었다. 윤영구 형제는 성찬식 말씀에서 회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보통 사람과 비교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더욱 많이 배우고 부지런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고 저활동 회원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노력할 수 있습니다.”

중앙 농아 지부의 회원들은 큰 꿈을 품고 있다. 그들이 공과 교실 겸 예배실로 쓰고 있는 작은 공간에 사람이 차고 넘쳐 큰 건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목표고 희망이다.

회원들은 모임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삼삼오오 모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회원들은 자주 웃었는데, 그때마다 얼굴에 아름다운 주름이 퍼져나갔다.

어쩌면 중앙 농아 지부는 과거의 영광을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 여전히 십여 명의 회원이 작은 교실에서 공과를 하고 성찬을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의 굳건한 신앙과 행복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소리는 없지만 우렁찬 그들의 찬송이, 간절하게 표현하는 그들의 기도가 매일, 매주 주님에게 닿을 것이기에.

이길용 회장은 지부 회원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떠난 모든 회원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담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개종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복음의 참된 진리를 배우면서 주님의 곁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청각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면서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스스로 발전하면서, 주님과 같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없다면 진리의 빛을 볼 수가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왕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참되고 가치 있는 곳을 알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앙 농아 지부는 아직 인원이 적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온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중앙 농아 지부로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비장애인 부모님들 중에 청각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중앙 농아 지부로 보내주십시오. 이곳에서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복음 공부를 함께 하고 서로 간증을 나누고 신앙을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비록 귀가 좋지 않지만 좋은 경험을 통해 복음을 배우고, 그 후 내세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청각장애가 축복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쇠막대를 잡으며 끝까지 간다면 축복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

한국어판 몰몬경, 희생과 노력의 결실 ③

게 일 이 카 회장의 아내인 그윈 카 자매는 이렇게 기록했다. “게일의 가장 큰 걱정은 한국어 몰몬경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회원들과 선교사들이 몰몬경을 번역하려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회원들은 책 전체를 한국어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진리로 그들의 생활을 축복할 필요가 있었기에 남편은 이 일에 관해 많이 생각하고 기도한 끝에 이 중요한 임무를 한인상 장로에게 맡겨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장로는 교회에서 전인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로는 한국어 및 영어에 대해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앙과 겸손, 헌신, 인내심과 일에 대한 열정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번역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장로는 번역이 사랑의 수고라고 말할 적도 있었습니다.”¹

에드윈 켄슨 장로는 이렇게 적었다. “한인상 장로와 함께 동구와 부산에서 동반자로 봉사하며 생활했던 것은 소중한 추억입니다. 그는 몰몬경을 번역하고 있었으며 저는 지부 회장이었습니다. 다른 선교사 두 명과 함께 전도를 마치고 지부로 돌아와 한인상 장로를 만났던 어느 날 저녁이 기억납니다. 그때 한 장로는 그날 해야 할 번역을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 날 번역한 구절 하나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는데, 한 장로가 낭독할 때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는 몰몬경이 참되며 한 장로가 번역자로서 훌륭한 번역을 했다는 증거였습니다.”²

한인상 장로는 자신의 수고를 이렇게 간략하게 전했다.

“일본어 번역본과 영어 몰몬경, 두 가지를 사용하여 선교 사업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제가

부름 받은 일이라는 것을 곧 깨달았으며, 저는 주님의 손에 놓인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영적인 경험에 대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복음에 관한 지식과 이곳 지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속에서 그분의 목적에 대한 저의 지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한 번은 한 장로는 복음 지식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갖게 되었는지를 로스 콜 장로가 카 회장님께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카 회장님은 ‘영적인 일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1965년 7월 한국에 도착한 스펜서 제이 팔머 회장님 아래서 여섯 달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탈고를 위해 계속 일했으며, 해야 할 세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색인과 각주를 준비했습니다. 종이와 잉크, 활자 형태, 책 형식,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세세한 일들을 마쳐야 했습니다. 팔머 회장님은 원고를 검토하고 교정을 볼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원래의 영어 각주가 영어 철자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으나, 한국어로 번역되니 주어와 동사, 목적어의 순서가 뒤바뀌고 뒤죽박죽이 되어 다시 순서를 바로잡고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선교사에서 해임된 후에 팔머 회장님은 제게 선교부에 계속 남아서 번역 책임자로 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몰몬경 번역이 끝나고 팔머 회장님과 함께 출판사로 갔을 때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인쇄기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카 회장님 재임 시절에 영국에서 구입했던 종이는 습도 때문에 상태가 나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관 창고로 가서 종이를 살펴보고 인쇄소

직원과 상의했습니다. 그들은 인쇄를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해 보았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이를 들고 보진재라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쇄소로 갔습니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인쇄를 진행시켰고,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67년 4월에 우리는 몰몬경 초판 3,000부를 인쇄하기로 보진재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표지를 양각 무늬 처리한 하얀 가죽 장정 몰몬경 두 권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연차 대회를 갖는 동안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과 고든 비 힝클리 장로에게 증정했습니다. 선교부 회장단에서 팔머 회장님의 보좌로 봉사하던 이호남 형제가 두 분에게 증정했습니다.

한국어 몰몬경 초판은 카 선교부 회장이 한국을 떠난 지 2년 후에 출판되었습니다. 초판 몰몬경을 모두 배포하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약 3,000 명의 회원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1991년 말에는 100만 권째 한국어 몰몬경이 서울의 배부 센터에서 판매되었습니다.”³ ■

〈이 기사는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 주
1. 같은 책, 79~71 쪽.
 2. 같은 책, 95 쪽.
 3. 같은 책, 109~110 쪽.



복지의 16 기본원리 ABC 기도 PRAYER

우리를 지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살과 뼈로 된 몸을 주셨으며 선택의지를 주셨습니다. 중국에는 우리가 구주이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약함과 범법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코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수단은 따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사용 요금도 없으며 충전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테나 수신이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단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본 원리

엘마는 조램인들 중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지자 지노스의 말씀을 인용해 기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하는 곳에서, 집에서, 혼자만의 조용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즉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처한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엘마서 33:3~10)

현세적인 필요 사항에 대한 기도

엘마의 가르침에 이어 앰울레크는 사람들에게 밭의 작물이나 양떼가 번성하고 증식할 수 있도록 부르짖으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이 잘 되도록, 그리고 가족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엘마 34:20~26 참조) 앰울레크는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자신의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너희의 복리와, 또한 너희 주위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 데 너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라.”(엘마서 34:27)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현대의 지도자들은 연차 대회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데브 제이 코니쉬 장로는 병원 레지던트였던 시절의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던 어느 날 장로는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는 25센트를 얻어서 치킨 한 조각을 먹고 힘 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혼자에게는 이것이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영혼의 겸손한 간구였습니다. 코니쉬 장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통닭집 건너편 길 위쪽을 보니, 땅에 떨어져 있는 25센트 동전이 보였습니다. 저는 감사와 안도의 마음으로 동전을 주워 왔고, 결국 닭다리 한 조각을 사서 맛있게 먹은 후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기도라는 특권”, 2011년 11월호 *리아호나*, 101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열두 살 무렵 일해서 모은 돈인 5달러짜리 지폐를 잃어버렸던 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모든 곳을 뒤져보다가 바지에서 돈을 꺼내지 않은 채 바지를 세탁소로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있어 5달러 정도 잃어버리는 것은 별 일이 아니겠지만, 이 어린 소년에게 그 돈은 매우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회장님은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기도했다고 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떨리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 결국 돈을 잃어버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젖은 5달러 지폐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돈을 꺼내면서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깊은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2011년 11월호 *리아호나*, 84쪽)

영적인 필요사항에 대한 기도

경전은 영적인 은사를 얻고자 진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노스는 “죄사함”을 얻고자 기도했습니다.(이노스 1:2) 엘마는 자신의 아들이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기도했습니다.(모사이야 27:14) 엘마 이세는 후에 자신의 아들 힐라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엘마 37:12~20)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큰 소망, 즉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제3니파이 19:9) 참으로 우리는 “자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엘마서 6:6)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 훌륭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해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며, 심히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엘마서 45:1) ■

한국취업정보센터

최 근 각 단위 조직 게시판에는 '교회의 취업 센터를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붙었다. 한국취업정보센터를 더 많은 회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업 선교사들의 노력이 담긴 포스터였다. 리아호나 지역 소식에서는 취업



선교사로 봉사 중인 이상태 장로와 홍경자 자매 부부, 김백주 장로와 김은숙 자매 부부를 직접 만나 한국취업정보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회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소식: 취업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직접 직업을 찾아 줍니까?

취업 선교사: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취업 선교사: 우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기를 도와주고 면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채용 정보도 알려 줍니다.

지역 소식: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기, 그리고 면접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줍니까?

취업 선교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잘 다듬어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들도록 코치해 주고, 비디오를

설치해서 모의 면접 과정을 촬영한 다음 무엇을 보완 해야 할지 조언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센터 인터넷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역 소식: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취업 선교사: 교회 공식 웹사이트(www.lds.or.kr)의 '취업센터' 페이지에서 '취업 정보'를 클릭하시면 카페로 갈 수 있습니다. 주소는 www.cafe.daum.net/ldsemployment 입니다. 이 카페에는 각 스테이크와 지방부의 취업전문가들도 가입해서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취업에 관한 정보도 많습니다.

지역 소식: 취업정보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은 회원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취업 선교사: 우선 감독이나 지부 회장, 그리고 각 단위 조직의 취업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어떤 직업을 원하고 급여는 얼마나 받길 원하는지, 또 본인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취업전문가와 취업 선교사들이 연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 소식: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찾아주십니까?

취업 선교사: 구인 광고를 싣고 있는 사이트에서 회원에게 맞을 법한 모집 광고를 찾아 알려줍니다. 그런 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기를 도와주고 면접 요령 또한

코치해 주는 것입니다.

지역 소식: 또 다른 도움도 있습니까?

취업 선교사: 있습니다. 바로 취업이나 자영업을 위한 워크숍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원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여주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워크숍에 참여하면 훨씬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소식: 워크숍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취업 선교사: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이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회원들을 위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소식: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취업 선교사: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준비와 열정입니다. 저희들은 회원들의 그러한 가치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 회원 모두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직업을 구해 자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봉사는 나눔이다

나는 항상 재능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재활용품을 판매해 생기는 수익금을 지치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는 비영리기구를 알게 되었고, 나는 그곳에서 연두색 앞치마를 입고 봉사를 시작했다. 나는 책을 판매하는 일을 맡았는데 고객은 물론이고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을 미소로 대했다. 나에게 있어 봉사 활동은 그만큼 행복한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자신있는 분야, 정말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더욱 기뻐했다. 나는 평소에도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또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

소아암 어린이 돕기 나눔 장터에서도 나는 책 판매를 담당했다. 그날 행사에는 축제 코너도 함께 있었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았다. 나는 손을 모아 확성기처럼 만든 뒤 북적거리고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책을 사라고 크게 외쳤다. 내 외침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주의를 끌고 자신 있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은 바로 선교 사업 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 나는 지금도 계속 봉사를 하고 있다. 내가 가진 책에 대한 지식과 대화하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 봉사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홍세형 형제, 광주 스테이크〉



동생인 김일수 형제가 왼쪽, 형인 김해수 형제가 오른쪽에 서 있다.

형에게 침례를 주던 날

내가 침례를 받은 지 1주년 되던 날, 나는 쌍둥이 형에게 직접 침례를 주었다. 형과 나는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알게 되었지만 침례를 받은 나와는 달리 형은 교회와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렇게 1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새로 이동 온 장로님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형은 장로님의 친절과 배려에 마음을 열고 함께 식사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그 뒤 형과 장로님들은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났고 얼마 뒤에 형은 성찬식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그 동안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던 형이 점점 변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형이 복음 토론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장로님들과 교회 친구들의 간증과 사랑으로 형은 그 모든 것들 것 이겨냈다.

나는 형에게 침례를 주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물속에서 형을 끌어올리던 그때, 내 마음속에는 우리 형제가 주님의 참된 복음 안에서 훌륭한 형제가 되어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 결혼을 하며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강한 소망이 싹텄다. 형은 침례 받은 후 다른 사람이 되었다. 교회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열렸던 EFY에 참석한 뒤에는 나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저녁이 되면 함께 경전을 읽고 기도를 한다. 나는 이 복음이 우리 형제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복음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 나는 형을 침례 주던 그날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소망을 이루고자 형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

〈김일수 형제, 안양 스테이크〉

지역 단신

동방사회복지원에 전달된 따뜻한 사랑

지난 2011년 11월 8일 공보 선교사로 봉사 중인 **팩** 장로 부부와 복지 선교사인 조만구 장로 부부가 동방사회복지원을 찾았다. 헌혈증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교회에서는 지난 2010년에 헌혈 행사의 일환으로 회원들에게 헌혈증 기부를 받았다. 그동안 사용처를 찾지 못했던 회원들의 헌혈증이 의미 있는 곳에 전달된 것이다.

동방사회복지원은 부모가 될 준비를 채 갖추지 못한 미혼 부모와 영아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한국공보위원회가 영아들의 건강을 위해 헌혈증과 함께 공기청정기를 기증하였다.

조만구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기꺼이 헌혈증을 기증하고 지금까지 기다려준 회원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작은 봉사가 한 장, 한 장 쌓여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관련 있는 아주 뜻깊은 곳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한국공보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사회 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단순히 교회를 알리는 것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앞장 설 계획인 것이다. ■



lds.or.kr을 통해서도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6명/해외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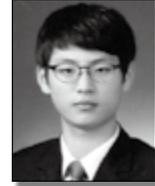
김건 장로
청주 스테이크
천안 와드
서울 선교부



이성원 장로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대전 선교부



류홍섭 장로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대전 선교부



이영환 장로
서울 영동 스테이크
강동 와드
부산 선교부



심자용 장로
용산 군인 지방부
영어 지부
시드니 선교부



이창민 장로
부산 스테이크
구포 지부
서울 선교부



윤현아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템플스퀘어



홍성아 자매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 와드
대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회장: 이성재(전임: Chapman, Todd Ezra 장로)
원주 지부 회장: 최내영(전임: 정병일)

대구 스테이크

김천 지부 회장: 김창호(전임: 황준성 장로)

울산 지방부

지방부 회장: 이준택(전임: 강형구)
제1보좌: 구자길(전임: 구자길)
제2보좌: 정외곤(전임: 정외곤)

기사를 기다립니다

후기 성도 다문화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다문화 가정을 알고 있다면 aron1979@hanmail.net이나 02-2232-1441(내선: 564)로 제보해 주십시오.